

농업·농촌경제동향
2000 겨울

농업관측센터 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 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작성자: 전망팀(김경덕 / 채성훈)

연락처: 3299-4240 / 팩스: 965-4395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1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5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8
1. 세계농업과 농정	8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17
III. 국내경제 동향	30
1. 거시지표	30
2. 물 가	34
3. 소 비	39
4. 고 용	41
IV. 농촌경제 동향	43
1. 농촌물가	43
2. 농가교역조건	46
3. 주요 품목의 농업소득	47
4. 농업인력	49
5. 농산물 수출입	50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57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57
2. 채소류	62
3. 과일류	71
4. 축 산	80

VI. 특별주제	91
○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도입방향	93
○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105
부 록	113
○ 2000년 4/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115

<요 약>

I. 국제경제동향

- 4/4분기의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착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은 일본의 경기회복 실패론 대두, 대만의 증권시장 불안, 동남아시아의 외환불안정, 터키의 국제구제금융 신청 등 2001년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다만 유럽은 유러화의 가치회복,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미국을 대신할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01년의 세계경제는 금년의 4%내외보다 약 0.6% 둔화된 3.8~4.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3%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며 유럽이 3%를 넘는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미국경제는 3/4분기에 2.4% 성장하였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1,154억달러임. 이러한 성장률은 2/4분기의 5.6%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며 4년만에 최저수준임. 2001년의 성장률 전망은 3.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유럽경제의 2001년 성장률은 2000년의 3.4%보다 소폭 둔화된 3.2%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시아는 2000년 5.6%, 2001년 4.8%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율불안은 계속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0년 7.7%, 2001년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년 3/4분기에 40달러에 육박하였던 국제 유가는 현재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 25달러, 두바이유는 2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유가수준은 당초 예상되던 WTI 기준 27~29달러보다 약 2~3

달러 낮은 수준임.

- 향후 유가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그 이유는 OPEC가 유가밴드제를 실시중이기 때문임. 유가밴드제는 유가가 20일 이상 22달러이하 수준을 형성하면 50만 배럴씩 생산량을 감축하고 20일 이상 28달러를 넘어서면 50만 배럴을 증산하는 제도임. OPEC의 감산여부는 향후 국제유가 수준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7일 OPEC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것임.

II.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중국의 WTO 가입이 2001년 이후로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중국과 주요 가맹국간의 개도국 대우문제임. 중국의 WTO 가입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보지만, WTO 차기협상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강화가 지체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음.
- 주요 수출국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기회의 증대를 기대한 무역계획의 수립이 시작되고 있음. 주요 곡물생산국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 무역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 농림성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으로부터 신선채소의 수입이 증가,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여, 파·양파·토마토·피망·표고버섯·골풀(다다미 재료) 등 6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긴급관세제도, SG)를 발동하기 위한 정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대장성, 통산성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토마토, 신선 채소류 등은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작아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것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대체조치로서 후생성에 의한 검역강화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2001년도(2000. 10. 1~2001. 9. 30) 농업세출법이 상원에서 10월 18일 가결된 후, 10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음. 이 법은 7월중에 양원을 일단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하원안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회계연도상 신년도에 들어선 10월 6일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하원에서는 11일에 가결된 것이며 예산 총액은 약 781억 달러임.
- 캐나다 정부는 최근 소득변동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패키지의 법안에 관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음. 이 패키지의 법안은 향후 3년간 실시 될 예정임.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각 주가 적어도 1999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간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국산 쇠고기였지만 이번에는 프랑스가 진원지임. EU는 농업각료이사회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으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WTO 가맹국들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입을 약속한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음.
- 일본 정부는 12월 21일 'WTO 농업협상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음. 일본의 제안서는 전문(前文), 협상시의 기본적인 중요사항, 6개 분

야의 제안, 농업협상의 진행방법,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료 안전보장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본 일본제안서의 내용’이라는 참고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억 4,035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3% 늘어난 18억 8,420만톤으로 전망됨.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4,385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3억 1,27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전년동기 18.6%에서 16.6%로 내려갈 전망이다.
- 2000년 6월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현재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9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됨. 그러나 소맥은 아직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음.

Ⅲ. 국내경제동향

- 3/4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전기대비로는 3.3% 증가하였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가 급랭하여 가계 지출이 둔화되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지출이 감소하여 최종소비지출은 4.9% 증가하는데 그쳤음.
- 수출과 내수가 모두 둔화됨으로써 제조업 가동율은 8월의 82%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재고증가율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1999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8.8%에 이르렀음.
-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물가의 상승세 둔화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

간수요가 감소하여 10월 2.8%, 11월 2.6% 상승하는데 그쳤음.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분기의 10.9%를 정점으로 3/4분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었음(8.6%).

- 2000년의 경제성장률은 9%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01년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5.3~6.2% 정도로 예측됨.
 - 소비자 물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3%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금년의 100억달러 내외보다 감소한 55~9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함.
 -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금년보다 약 0.2~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와 같은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가 가속됨으로써 실업률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11월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0.2% 증가한 4.1% 수준임. 이는 현대건설의 유동성부족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광공업의 고용흡수 능력이 둔화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업,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경제활동인구는 22,164천명으로 전월보다 0.8%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1% 감소한 21,366천명임.

IV. 농촌경제동향

- 10월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0.3% 전월대비 1.5% 상승하는데 그쳤음. 미곡(4.1%), 맥류(4.0%), 잡곡(7.6%) 등의 곡물(2.8%)과 특용작물(6.9%), 부산물(46.6%)의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서류(△51.8%), 채소(△30.5%), 화훼부류(△38%)의 판매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음.
- 10월의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8% 전월대비 0.4% 상승하였

음. 상승폭이 큰 부류는 가계광열(13.8%), 보건의료(23.4%), 도정료(12.6%) 농기계임차(7.3%) 등임. 하락폭이 큰 부류는 주거비(Δ 4.5%)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부류보다 상승한 부류가 더 많았음.

- 10월의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3.4%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1.1% 개선되었음. 농가구입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인 반면 판매가격은 금년 중반의 고랭지배추와 고랭지무의 폭락, 과실가격 하락,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 악재가 겹쳐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공공요금 인상과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농업 경영비 증가 및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 상반기까지 농가 교역조건이 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4/4분기의 농업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쌀의 농업소득이 5.4% 증가하였음에도 사과, 배, 감귤, 배추, 오이 등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한 때문임.
- 11월까지 누계기준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1999년 동기대비 7.9%가 감소한 1,427백만달러에 그쳤음. 농산물 수출은 14%가 증가한 1,016백만달러로서 신선채소류의 수출증가율이 높았음. 이는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일본품종을 수입하여 일본수급상황이 나쁜 시기에 수출하였기 때문임. 축산물은 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61.4%가 감소한 144백만달러를 기록함. 임산물의 수출은 인삼류의 홍콩내 부정유통 단속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6.5%가 감소하여 267백만달러에 그침.
-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이 활발하였던 것은 대만 및 일본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반사효과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00년 9월 일본이 국제수의검역국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정받아

육류수출을 재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청정국으로 복귀하더라도 일본 및 동남아 수출시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대만의 경우에는 최근 구제역이 재발하여 당분간 자국산 육류의 수출 및 국내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 11월까지의 누계기준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7,780백만 달러를 기록함. 축산물은 39.2% 증가하였으며 농산물도 10%를 상회하는 수입증가세를 보임.
- 열대과일은 3/4분기와 마찬가지로 오렌지가 수입을 주도하여 11월까지 수입은 53.1%가 증가한 112백만달러를 수입함. 이중 미국산은 70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두배가 넘는 108.1% 증가하였음. 금년산(2000/01) 미국 오렌지는 수확량이 약 12% 감소할 전망이나 당도는 1도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2001년에는 오렌지 수입량이 금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123.9% 증가한 1,018백만달러, 임산물 수입은 34.1% 증가한 257백만달러이며 축산물 수입은 53.2% 증가한 21백만달러임.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농림축산물 수출입차는 1,621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음.
- 최근 중국은 길림성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질도 한국·일본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 당국도 WTO가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옥수수 생산을 줄이고 쌀생산으로 전환을 유도중이어서 중국산 쌀의 수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과일의 경우는 세계 최대의 과실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당도와 가격경쟁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분석됨. 사과, 배 등 중국산 과실이 수입될 경우 오렌지와 더불어 국내 과일 생산농가의 경영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V.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4/4분기의 주요 품목별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오른 품목보다 내린 품목이 더 많았음. 채소류 중에서는 배추가 53.2% 하락하였으며 오이가 42% 하락하였음. 배추의 경우는 1999년의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결과 하락율이 크게 나타났으나 현 가격수준은 평년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양파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9% 상승하였는데 이는 생산량이 지난 해보다 약 6% 적었기 때문임.
- 내년 채소류 가격 중 무는 재배의향면적이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하락의 가능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배추의 경우에도 월동 배추 재배면적이 26% 증가하여 내년 1~3월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 마늘의 경우에도 재고량이 많고 수요가 부진하여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과일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사과 출하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포도, 배, 단감 등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과실류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이 크게 하락하였음. 수박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2.2%, 참외는 23.8% 하락하였음. 사과, 배의 경우도 각각 31%, 31.2% 하락함.
- 2001년 과일 가격은 금년산 저장량이 많고 배의 재배의향면적이 200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다만 참외, 수박의 경우는 2001년 재배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01년 상반기 가격은 2000년 하반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물 중 한우가격은 전년동기 대비로는 2.3%하락에 불과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15.7% 상승하였음. 이는 사육두수와 도축물량이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임. 육계의 가격은 3/4분기까지 사육수수가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하여 19.5% 상승하였으나 전기대비 26.3% 하락하였는데 이는 말복과 추석 등의 계절적 수요가 4/4분기에는 없었기 때문임.

- 암소를 중심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1년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년 3월에는 금년 12월보다 2.4% 감소한 16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사육두수 감소추세는 2001년 중반 이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측됨.

품목	단위	1999(4/4) (A)	2000(3/4) (B)	2000(4/4) (C)	증감율(%)		비고
					C/A	C/B	
일반미	천 원/80kg	157	168	163	3.4	△3.2	호남미
보리	천 원/70kg	72	72	72	0.0	0.5	쌀보리
콩	천 원/70kg	223	236	219	△1.6	△7.1	백태
감자	천 원/20kg	11	9	9	△15.2	7.7	수미
고구마	천 원/15kg	8	20	12	45.8	△42.6	
배추	천 원/5톤트럭	3,793	2,655	1,776	△53.2	△33.1	
무	천 원/5톤트럭	3,219	2,497	2,561	△20.4	2.6	
마늘	원/kg	1,553	1,409	1,614	3.9	14.5	난지형
양파	원/kg	395	411	549	39.0	33.5	
대파	원/kg	814	1,144	769	△5.6	△32.8	
건고추	원/600	4,126	4,366	4,824	16.9	10.5	화건
오이	원/20kg	33,950	25,957	19,684	△42.0	△24.2	취청
감귤	원/15kg	19,031	56,190	18,931	△0.5	△66.3	
사과	원/15kg	25,437	19,301	17,546	△31	△9.1	
배	원/15kg	28,188	24,493	19,393	△31.2	△20.8	신고
포도	원/10kg	15,182	24,753	13,605	△10.4	△45	
수박	원/6kg	5,086	4,004	3,450	△32.2	△13.8	
참외	원/15kg	16,250	1,6211	11,678	△23.8	△28.0	
한우	천 원/500kg	3,020	2,549	2,949.5	△2.3	15.7	큰수소
성돈	천 원/100kg	189	163.3	212	12.2	29.8	
돼지고기	원/kg	2,772.7	2,393	1,827	△34.1	△23.7	
닭고기	원/kg	875.7	1,420.3	1,046.5	19.5	△26.3	
계란	원/10개	647.3	795.7	829	28.1	4.2	

주: 축산물은 11월까지의 가격이며 그외의 품목은 12월 중순까지의 가격임.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4/4분기의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연초 전망치보다 높은 4.4~4.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착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은 일본의 경기회복 실패론 대두, 대만의 증권시장 불안, 동남아시아의 외환불안정, 터키의 국제구제금융 신청 등 2001년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다만 유럽은 유러화의 가치회복,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미국을 대신할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01년의 세계경제는 금년의 4%내외보다 약 0.6% 둔화된 3.8~4.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3%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며 유럽도 3%를 넘는 성장을 유지할 것을 전망되기 때문임.
- 미국경제는 3/4분기에 2.4% 성장하였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1,154억달러임. 이러한 성장률은 2/4분기의 5.6%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며 4년만에 최저수준임. 민간소비(4.5%) 및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2/4분기의 17.9%에서 대폭 감소한 5.8%에 그쳤고, 주택건설도 10.5% 감소하여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음.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의 주가수준은 연일 하락세를 보여 세계증시의 동반하락을 유도하였음. 2001년의 성장률 전망은 3.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진에 따라 설비투자 축소와 함께 대규모 감원이 진행중이며 이는 주식시장 침체와 함께 민간소비 감소라는 연쇄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임. 따라서 미국경제의 추가적인 성장률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착륙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일본의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연율 1%로 전기대비로는 0.2%에 그쳐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할 수는 없음.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2/4분기의 0.6%감소에서 3/4분기에는 1.5% 증가로 개선되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0.0% 수준임. 그러나 그간 약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3/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정책에 의존하던 경제성장이 미약하나마 서서히 민간주도로 이행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일본의 2000년 연평균 성장률은 1.4~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2001년의 경제성장률은 1.8~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유럽경제는 연평균 3.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달러대비 유러화의 지속적 약세로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 유럽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금년보다 소폭 둔화된 3.2%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증권시장 침체로 유러화는 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달러대비 1대1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반면 세계경제의 하강국면에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자본유입으로 유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동유럽은 서유럽 특히 독일의 성장에 따른 반사효과로 수출이 증가하고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지속되고 있음. 민간소비는 미약하지만 2001년에는 주요 성장요인으로 부상할 전망. 폴란드는 금년 5.2%, 내년 5.6% 성장할 전망이며 체코는 금년 2.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동남아시아는 금년 5.6%, 내년 4.8%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율불안은 계속 될 전망이다. 최근의 동남아 환율불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정치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움. 세계 성장률의 하락으로 수출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동남아 각국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화의 동반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금융위기 전후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중국과의 경쟁격화, 과잉설비 보유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음. 대만은 전자산업의 부진과 정권교체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 중국은 금년 7.7%, 내년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양호한 성장률임에도 중국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WTO가입을 앞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는 중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중국정부는 확대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음.
- 중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1월 말 2001년 외채상환용 자금지원을 IMF에 요청. IMF 직접금융 지원액은 13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추가로 스페인 등의 금융기관에서 200억 달러를 조달하여 총 397억달러를 아르헨티나에 제공하기로 함. 그러나 금융지원의 대부분이 2001년 도래하는 외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 저하와 외채위기는 2001년 연중 계속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은 금융 및 재정개혁이 미진하다는 데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페소화를 미국 달러와 1대1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임. 그간 달러화의 강세로 수출이 감소하였고 주 수출국인 브라질마저 1999년 레알화를 평가절하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

- 러시아의 2000년 경제성장률은 7%, 물가상승률은 2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01년 경제성장은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금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은 정부목표치인 12%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토지개혁, 노동법 개정이 실패하고 세계개혁도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데 그쳤으나 구조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도 외채상환용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구소련 시절 발생한 대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러시아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전망.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계	3.4	3.5	2.2	3.0	4.4(4.7)	3.8(4.2)
선진국	3.0	3.1	2.4	2.7	4.0(4.2)	3.3(3.2)
미국	3.6	4.4	4.4	4.2	5.3(5.2)	3.6(3.2)
일본	5.2	1.6	△2.5	0.3	2.1(1.4)	3.1(1.8)
EU	1.7	2.6	2.7	2.2	3.4(3.4)	3.2(3.3)
개도국	6.0	5.2	1.3	4.0	6.0(5.6)	5.6(5.7)
태평양연안국 ¹⁾	6.6	4.9	△5.0	5.9	6.9(6.7)	5.7(6.6)
한국	6.8	5.0	△6.7	10.7	8.2(8.8)	6.0(5.5)
중국	9.8	8.5	7.8	7.1	7.7(-)	7.5(-)
중남미 ²⁾	3.2	4.9	1.0	△0.8	3.7(4.3)	4.5(4.5)
동유럽	3.0	2.1	2.3	2.5	3.9(3.1)	4.5(4.2)
구소련연방	△3.2	0.8	△3.2	2.9	5.1(4.9)	4.3(4.1)

주: 1)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2) 멕시코가 제외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200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0.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1. 교역량

- 금년 세계교역은 4/4분기의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활황이 지속된 결과 전년대비 11.4~1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001년의 교역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둔화된 8.2~9.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금년의 경우는 증가율이 상향조정되었으나 2001년은 금년보다 하향조정되었음. 그 이유로는 4/4분기에 들어 미국경제가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부진한 점,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하락에 의한 부(-)의 자산효과로 민간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들 수 있음.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교역량	전 체	9.6	3.9	4.4	11.4(13.3)	8.2(9.7)
	원 자 재	6.2	1.2	0.8	7.7	6.4
	연료·에너지	4.3	1.0	3.8	8.8	5.5
	공 산 품	10.8	4.6	5.0	12.2	8.8
환율	엔/달러	121.0	130.9	113.9	106.4	105.9
	마르크/달러	1.73	1.76	1.84	2.15	2.19
	유러	0.887	0.900	0.939	1.059	0.986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2000.
() OECD Economic Outlook, 68, November, 2000.

2.2. 환율

- 4/4분기의 국제 외환시장은 유러화 강세, 엔화 약세, 대만 외환시장

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유러화의 강세는 미국의 경기하강 조짐이 예상보다 강하여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경기하강이 완만한 유럽지역으로 국제자본이 모여들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01년 초중반에는 달러대비 유러화의 가치가 1대1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엔화의 약세는 일본의 경기상승이 부진하고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임. 또한 일본정부로서도 엔화 약세가 수출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엔 약세를 용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만 달러의 폭락은 주로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불안에 기인하고 있으나 전자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대규모 금융부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 대만으로서는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권교체 경험의 부족으로 혼란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금융부실은 과거 국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권유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 그러나 총 외채가 외환보유고의 1/3에 불과하며 재정적자 역시 GDP의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해 19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2.3. 원유가격

- 금년 3/4분기에 40달러에 육박하였던 국제 유가는 현재 WTI 기준 25달러, 두바이유는 2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유가수준은 당초 예상되던 WTI 기준 20달러후반보다 약 3~4달러 낮은 수준임.
- 유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요국의 원유재고량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이 당초보다 0.5% 가량 하향조정되어 2001년 원유수요가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임.

- 그러나 향후 유가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그 이유는 OPEC가 유가밴드제를 실시중이기 때문임. 유가밴드제는 유가가 20일 이상 22달러이하 수준을 형성하면 50만 배럴씩 생산량을 감축하고 20일 이상 28달러를 넘어서면 50만 배럴 증산하는 제도임.
- OPEC의 감산여부는 향후 국제유가 수준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7일 OPEC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것임.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00.7	2000.8	2000.9	2000.10	2000년평균	2001
WTI 유가	29.86	31.25	33.94	33.06	25.64 ¹⁾	23.62
브렌트 유가	28.97	31.65	33.27	31.41	-	-
두바이 유가	26.20	27.07	30.03	30.49	-	-

주: 1) 두바이, 브렌트, 알래스카산 평균유가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 세계농업과 농정²⁾

1.1. 중국의 WTO 가입은 2001년으로

- 중국의 WTO 가입이 내년 이후로 늦어지게 되었음. 가입조건을 둘러싸고 WTO 작업반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있었음.
- 중국의 WTO 가입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보지만, WTO 차기협상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자간의 자유무역체제 강화가 지체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시기는 불투명함.
- 기존의 주요 가입국과 중국간의 최대 쟁점은 중국의 개도국 대우 문제임. 중국은 WTO 가입후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일단 약속하였지만, 최근에는 보조금에서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개도국 취급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주요 가맹국측은 중국이 농산물의 보조금을 장래에 부활할 의도가 아닌가 하고 경계하고 있음. “경제 규모의 크기에서 볼 때 단순한 개도국 취급은 어렵다”고 견제하는 등 양자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음.
- 가맹국측은 국산품과 수입품의 검사를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중국의 2원적 검사시스템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검사 기준은 공통이며 내외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2)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김태곤 부연구위원(taego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의 조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음.

- 중국의 WTO 가입의 전제조건은 ①가입조건을 확정하는 의정서작성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작업반회의에서의 다자간 협상, ②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 멕시코와의 개별협상 등 2가지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 것임. 그 다음에 WTO의 의사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중국이 의정서를 비준, WTO에 기탁하여 30일이 지나야 가입이 정식으로 발효됨.

1.2. 중국의 WTO 가입후 곡물수입량 예측

-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국내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음. 최근 중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는 대량의 곡물수입할당량이 설정되어 있어 수출국들은 절호의 무역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정된 곡물수입 할당량을 중국이 완전히 소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기회의 증대를 기대하면서 무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주요 곡물생산국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 곡물생산국은 무역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WTO 가입후에 중국에서 최대 수입량이 예상되는 곡물은 소맥임. 중국의 WTO 가입당시의 소맥 수입할당량은 730만톤이고, 2004년 할당량은 963만 6,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옥수수 수입할당량은 가입당시 450만톤, 2004년에는 72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음. 더욱이 쌀의 수입할당량은 가입당시가 266만톤이며, 4년후에는 532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음.

- 1999년 중국의 소맥 수입량은 48만톤, 옥수수 수입량은 7만톤, 쌀 수입량은 17만톤이었음. 중국의 국내 곡물재고량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의 곡물 수입은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중국이 수입할당량을 완전히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WTO 가입에 따른 수입량 증가에 의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생산량이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서 중국 농가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소맥, 옥수수, 쌀 및 면화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주요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중앙부 및 서부지역의 일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현재 정부는 WTO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나 내년에 새로운 농업지원책이 개시될 전망은 없을 것으로 보임.

1.3. 일본 농산물 일반세이프가드 발동검토

- 일본 농림성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신선채소의 수입이 증가,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여, 파·양파·토마토·피망·표고버섯·골풀(다다미 재료) 등 6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긴급관세부과, SG)를 발동하기 위한 정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대장성, 통산성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대장성, 통산성, 농림성 등 3성 장관이 파·표고버섯·골풀 등 3품목에 대하여 정부조사를 실시하기로 12월 19일 결정하였음. 정부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증거제출, 의견표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정부는 조사를 통하여 수입증가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손실

등을 입증해야함.

-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된 토마토와 피망, 양파 등은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것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대체조치로서 후생성에 의한 검역강화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농림, 대장, 통산 등 3성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해야함. 조사항목은 첫째, 수입증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수입증가가 산지 또는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고, 셋째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
- 정부조사는 4 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됨. 세이프가드 발동후 상대국이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WTO 분쟁처리기관에 제소할 수도 있음. 한편 값싼 수입채소가 소비자의 지지를 얻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농림성, 통산성, 대장성 등 3성 모두가 일반 세이프가드 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현재 쌀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채소가격까지 급락해서 농가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과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1.4. 미국 2001년 농업세출법 제정

- 미국의 2001년도(2000. 10. 1~2001. 9. 30) 농업세출법이 상원에서 10월 18일 가결된 후, 10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

있음. 이 법은 7월중에 양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하원 안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회계연도상 신년도에 들어선 10월 6일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하원에서는 11일에 가결되었음. 예산 총액은 약 781억 달러규모임.

- 제정과정에서 가격하락과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농가긴급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서부 산림재해 발생이나 한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름에 약 36억 달러가 추가 계상되었음. 이 중에는 약 16억 달러의 곡물농가에 대한 수량·품질저하대책, 약 4억 9,000만 달러의 한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약 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생유가격저하에 대해 ‘낙농가소득보전대책’도 마련되어 있음. 낙농가 소득보전대책은 단위당 2000년 생유가격과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과의 차이의 35% 상당액이 직접지불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농가당 대상수량 상한은 390만 파운드(약 1,800톤)로 설정됨.
- 축산관련대책으로는 가공원료유의 가격지지제도가 재연장(2001. 12. 31까지 1년간)되었으며, 또 연내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식육팩커에 대한 거래가격 등에 관한 ‘정보보고의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되었음. 그리고 곡물 등의 ‘가격지지용자제도’(용자부족불제도 등)에 대해서는 농가당 수급상한이 2배인 15만 달러로 인상되었음.

1.5. 캐나다 새로운 농가구제법안 승인

- 캐나다 정부는 최근 소득변동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팩키지법안에 관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음. 이 팩키지법안은 향후 3년간 실시 될 예정임.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각 주가 적어도 1999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생산자의 소득변동을 경감시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농장대표자 사이에서 구제대책의 패키지 법안제정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이 와중에 캐나다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새로운 대책은 연방 및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제대책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내역은 현금융자(fall cash advances), 순수입안정계정(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s), 작물보험(crop insurance), 주 독자 프로그램, 재해방지대책 등임. 이는 그동안 농업단체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임.
- 2000년 7월 새로운 전국구제대강협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향후 3년간 정부지원의 명확한 수준이 설정되었음. 이 협정에는 향후 3년에 걸쳐 농가를 대상으로 한 36억 미달러 상당의 지원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음. 연방정부와 각 주가 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연방정부는 22억 미달러를 기부하고 나머지 14억 미달러를 각 주가 제공할 예정임. 이 패키지 법안에 의한 농가 수취액이 1999년 금액을 하회하는 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면과 경제면의 2가지 피해가 지원대상이 됨. 생산위험은 기후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며, 한발·호우·서리·안개·작물 병충해가 포함됨. 경제적 피해는 농가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경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의되며, 세계시황, 국제무역 정책 및 계획, 운전비용 인상, 고정비 증대와 수익률 감소 등에 의한 피해가 여기에 해당됨.
- 이번 지원대책의 목적은 농가소득이 지금까지의 평균수입의 적어도 70%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임. 신정책에서는 무보수인 가족노동이 평가되어 다른 생산비용과 합산됨. 한편 재해정도와 지원자격에 관해서는 모든 농장이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한다는 것임.

1.6. 유럽 광우병 불안 확산

- 인간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국산 쇠고기였지만 이번에는 프랑스가 진원지임. EU는 농업각료이사회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으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프랑스에서는 감염자 가족이 프랑스, 영국 정부와 EU를 독살죄로 고소하는 한편, 학교급식에서 쇠고기가 사라지는 등 축산농가는 쇠고기 가격 하락에 고민하고 있음. 정부는 뼈가 붙어 있는 쇠고기 판매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안전성 중시보다 가격하락 대책이 목적인다고 비판하고 있음.
- 동물성 사료를 대신하는 것은 대두를 주원료로 한 사료이지만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임.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프랑스는 EU전역에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외면하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독일도 수입금지를 준비를 하고 있음.
- EU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충격으로 인한 쇠고기 가격 하락임. 공통농업정책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차액을 보상해야 함. 때문에 EU는 안전을 강조하고, 소의 검사를 강화하면 동물성 사료의 일률적인 금지는 필요 없다는 자세를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으나 일단년부터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할 전망이다.

1.7. MMA 실시율 미국·EU가 저조

- WTO 가입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의 수입을 약속한 MMA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음.
- 이들 국가의 실시율이 낮다는 것이 WTO 농업협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실시율이 100% 이하인 농산물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등 국영무역 품목이 완전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로서 일본의 실시율이 67%로 미국·EU 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임. 한국은 70%, 캐나다는 85%이다. 호주는 91%임.
- 실시율이 낮은 것은 실제 수입량이 약속한 수입량에 달하지 않아도 협정위반을 문제시하지 않는 민간무역 농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미국은 낙화생이 100% 실시율이지만 쇠고기는 72.9%, 농축우유는 71.1%임. 또한 뉴질랜드의 사과는 불과 3.7%, 캐나다의 마아가린은 6.4%에 머물고 있음.
- 100% 실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임.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한국의 쌀 및 쌀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함.
- MMA는 시장개방의 촉진을 목적으로 UR 농업협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음. 당시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5% 미만인 농산물은 국내 소비

량의 3~5%에 대해 저관세 또는 제로관세에 의한 수입기회(MMA), 수입이 5% 이상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기회(CMA)가 요구되었음. 그러나 이는 수입기회의 「약속」이며, 100%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님.

-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쌀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MMA 분을 일원화하여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관계없이 해당품목의 수입기회는 「수입의무」로 해석되고 있음.

1.8. 일본 WTO 농업협상 제안서 제출

- 일본 정부는 12월 21일 ‘WTO 농업협상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음. WTO사무국은 12월까지 각국의 제안서를 받아서 2001년 2월에 각국에서 취합한 제안서의 설명회를 가지고, 3월부터 제안서를 정리, 향후 협상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임.
- 일본의 제안서는 전문(前文), 협상시의 기본적인 중요사항, 6개 분야의 제안, 농업협상의 진행방법,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료안전보장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본 일본제안서의 내용’이라는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인 ‘각국에 있어서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명기하고 있음. 이러한 공존의 철학 아래서, ①다원적 기능 배려, ②식료안전보장 확보, ③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질서 불균형 시정, ④개도국 배려, ⑤소비자·시민사회 배려 등 5가지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³⁾

2.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1.1. 전체 곡물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억 4,035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5,656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 3,866만톤 감소한 21억 9,691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39	1,868.78	1,836.64	1,840.35	△1.5	0.2
공 급 량	2,213.72	2,235.57	2,191.75	2,196.91	△1.7	0.2
소 비 량	1,846.93	1,879.01	1,883.78	1,884.20	0.3	0.0
교 역 량	256.93	274.83	267.78	265.91	△3.2	△0.7
기말재고량	366.79	356.56	307.97	312.70	△12.3	1.5
기말재고율(%)	19.9	19.0	16.3	16.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3) 이 자료는 농산업경제연구부 성명환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 mhsung@krei.re.kr로 연락바람.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3% 늘어난 18억 8,420만 톤으로 전망됨. 반면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3.2% 줄어든 2억 6,59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가 될 전망이다.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4,385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3억 1,27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16.6%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1999/00년도 재고율보다 약 2.4% 포인트 낮은 수준임.

2.1.2. 쌀

- 2000/01년도 쌀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435만톤 정도 줄어들어 4억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0% 감소한 607만톤, 중국도 1.8% 감소한 1억 3,65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2000/01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5% 늘어난 4억 266만톤으로 전년보다 220만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00/01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0.2% 늘어난 2,40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망됨.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0% 줄어든 252만톤 수준인 반면 베트남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18.8% 늘어나 380만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2000/01년도에는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3.2%가 줄어든 6,26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재고율도 15.6%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인도네

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임.

국제 쌀(정곡 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4.17	404.94	397.71	400.59	△1.1	0.7
공 급 량	474.86	486.56	484.68	488.22	0.3	0.7
소 비 량	388.61	400.48	401.19	402.66	0.5	0.4
교 역 량	26.94	24.05	25.04	24.09	0.2	△3.8
기말재고량	60.28	64.74	59.14	62.67	△3.2	6.0
기말재고율(%)	15.5	16.2	14.7	15.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2.1.3. 소맥

- 세계 밀 생산량은 1999/00년 5억 8,725만톤에서 2000/01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5억 8,03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임.
- 2000/01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1999/00년 5억 9,701만톤과 비슷한 수준인 5억 9,697만톤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8/9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억 2,301만톤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00년 1억 3,284만톤으로 늘어났으나, 2000/01년에 다시 전년보다 4.3% 줄어든 1억 2,711만톤으로 될 전망이며,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1.9%가 될 전망이다.

- 2000/01년에는 소비량은 큰 변동 없으나 생산량 감소로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13.1% 감소한 1억 991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고 미국의 재고량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1.2%에서 18.4%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8.39	587.25	579.87	580.35	△1.2	0.1
공 급 량	848.43	854.21	832.25	832.93	△2.5	0.1
소 비 량	590.81	597.01	595.96	596.97	0.0	0.2
교 역 량	123.01	132.84	126.78	127.11	△4.3	0.3
기말재고량	136.30	126.54	110.99	109.91	△13.1	△1.0
기말재고율(%)	23.1	21.2	18.6	18.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8, Nov. 9, 2000.

2.1.4. 옥수수

- 2000/01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8,780만톤으로 전년보다 2.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생산량은 증가하나 중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아르헨티나의 생산량도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임.
- 2000/01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1.0% 늘어난 6억 886만톤으로 전망됨. 그러나 옥수수의 교역량은 전년보다 3.9% 줄어든 7,945만톤, 생산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돌 전망이다.

- 2000/01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1억 414만톤으로 전망됨.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줄어든 17.1%가 될 전망이다.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5.57	605.22	588.38	587.80	△2.9	△0.1
공 급 량	779.22	807.54	793.3	792.06	△1.9	△0.2
소 비 량	580.84	602.84	611.85	608.86	1.0	△0.5
교 역 량	75.06	82.65	81.51	79.45	△3.9	△2.5
기말재고량	122.83	125.21	101.89	104.14	△16.8	2.2
기말재고율(%)	21.1	20.8	16.7	17.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2.1.5. 대두

-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0/01년에 사상 최대인 1억 6,734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4.2% 늘어난 1억 6,770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36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 2000/01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665만톤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7.9%에 이를 전망이며, 전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56.9%, 브라질이 23.2%, 아르헨티나가 10.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0.2%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83	157.67	166.35	167.34	6.1	0.6
공 급 량	225.05	231.02	235.59	237.74	2.9	0.9
소 비 량	160.18	160.96	165.47	167.70	4.2	1.3
교 역 량	38.67	46.29	45.37	46.65	0.8	2.8
기말재고량	26.19	23.78	24.74	23.39	△1.6	△5.5
기말재고율(%)	16.4	14.8	15.0	13.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339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378만톤과 비교하여 39만톤 정도 줄어들어 기말재고율도 13.9%로 내려갈 전망이다. 세계 전체의 대두 재고율은 내려가지만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재고량은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2.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2.1. 개황

- 2000년 6월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현재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짐.
-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9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됨. 그러나 소맥은 아직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음.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8	1999	1999. 12	2000. 11	2000. 12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430.71	500.56	458.83	358.25	347.22	△30.6	△24.3	△3.1
쌀(장립종)	309.56	255.60	239.83	190.50	189.00	△26.1	△21.2	△0.8
소 맥	119.90	122.06	112.44	110.04	110.97	△9.1	△1.3	0.8
옥수수	102.66	92.10	86.20	92.25	92.61	0.6	7.4	0.4
대 두	234.33	185.90	180.97	188.19	197.41	6.2	9.1	4.9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2.2.2 쌀

-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함. 이후 하락하여 2000년 12월 국제가격(12월 14일 기준)은 전년대비 30.6%, 전년동월대비 24.3%, 전월대비 3.1% 하락한 톤당 347.22달러

수준임. 이는 1995년 여름 이래 최저수준임.

-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12월(12월 14일 기준)에는 전월대비 0.8% 하락한 톤당 189.00 달러 수준임. 이는 전년보다 26.1%, 전년동월대비로는 21.2% 낮은 수준임.

2.2.3. 소맥

-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 153 달러로 하락하였음.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음.
-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12월(12월 14일 기준) 현재에는 110.97 달러로 전월보다 0.8% 상승함.
- 2000/01년의 국제가격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재고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1970년대 곡물 파동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 밀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전망이다.

2.2.4. 옥수수

-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음.
-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후 하락세가 반전되어 2000년 12월(12월 14일 기준) 현재 톤당 92.61달러로 상승함.
- 2000/01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기말재고량이 1999/00년도에 비해 16.8% 하락할 전망이어서 국제 옥수수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2.2.5. 대두

-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12월(12월 14일 기준) 현재에는 197.41 달러로 상승함. 이는 전월보다 4.9% 상승한 수준임.
- 2000/01년도 대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소비량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국제가격은 보합세 내지는 약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두의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제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74.86	486.56	484.68	488.22	0.3	0.7
기초재고량	54.73	60.28	62.62	64.74	7.4	3.4
생산량	394.17	404.94	397.71	400.59	△1.1	0.7
미국	5.80	6.46	6.07	6.07	△6.0	0.0
태국	15.59	16.50	15.85	16.60	0.6	4.7
베트남	20.11	20.75	20.60	20.70	△0.2	0.5
인도네시아	31.85	33.45	32.10	33.50	0.1	4.4
중국	139.10	138.94	136.50	136.50	△1.8	0.0
일본	8.15	8.35	8.62	8.62	3.2	0.0
수입량	25.96	21.34	24.35	22.89	7.3	△6.0
인도네시아	3.90	1.80	3.00	1.80	0.0	△40.0
중국	0.17	0.20	0.25	0.25	25.0	0.0
일본	0.65	0.72	0.75	0.75	4.2	0.0
소비량	388.61	400.48	401.19	402.66	0.5	0.4
미국	3.59	3.81	3.87	3.87	1.6	0.0
태국	8.90	9.60	9.10	9.99	4.1	9.8
베트남	15.61	17.59	16.64	16.94	△3.7	1.8
인도네시아	35.40	36.00	36.00	36.50	1.4	1.4
중국	136.00	137.00	136.75	136.75	△0.2	0.0
일본	9.10	9.45	9.25	9.30	△1.6	0.5
수출량	26.94	24.05	25.04	24.09	0.2	△3.8
미국	2.73	2.80	2.52	2.52	△10.0	0.0
태국	6.68	6.30	6.60	6.30	0.0	△4.5
베트남	4.56	3.20	4.00	3.80	18.8	△5.0
기말재고량	60.28	64.74	59.14	62.67	△3.2	6.0
미국	0.69	0.86	0.86	0.86	0.0	0.0
태국	1.06	1.66	1.45	1.97	18.7	35.9
인도네시아	3.88	3.13	1.53	1.92	△38.7	25.5
중국	27.29	26.23	22.83	23.03	△12.2	0.9
일본	2.54	1.96	1.64	1.43	△27.0	△1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48.43	854.21	832.25	832.93	△2.5	0.1
기초재고량	138.73	136.30	127.09	126.54	△7.2	△0.4
생산량	588.39	587.25	579.87	580.35	△1.2	0.1
미국	69.33	62.57	60.51	60.51	△3.3	0.0
호주	22.11	25.01	20.00	19.50	△22.0	△2.5
캐나다	24.08	26.85	25.50	26.80	△0.2	5.1
EU15	103.09	96.89	104.77	104.77	8.1	0.0
중국	109.73	113.88	102.00	102.00	△10.4	0.0
러시아	27.00	31.00	36.50	36.50	17.7	0.0
수입량	121.31	130.66	125.29	126.04	△3.5	0.6
EU15	25.17	25.65	24.78	24.78	△3.4	0.0
브라질	7.30	7.56	7.70	7.90	4.5	2.6
북아프리카	16.82	16.15	17.00	17.00	5.3	0.0
파키스탄	3.13	2.00	0.15	0.15	△92.5	0.0
인도	1.99	1.70	0.05	0.05	△97.1	0.0
러시아	2.49	5.40	2.50	2.50	△53.7	0.0
소비량	590.81	597.01	595.96	596.97	0.0	0.2
미국	37.69	35.38	34.73	34.86	△1.5	0.4
EU15	88.81	88.85	92.43	93.43	5.2	1.1
중국	115.57	117.00	114.00	114.00	△2.6	0.0
파키스탄	21.28	21.40	21.60	21.60	0.9	0.0
러시아	34.84	35.90	37.00	36.70	2.2	△0.8
수출량	123.01	132.84	126.78	127.11	△4.3	0.3
미국	28.36	29.65	29.94	30.62	3.3	2.3
캐나다	14.71	19.17	18.00	19.00	△0.9	5.6
EU15	35.93	37.63	36.90	35.90	△4.6	△2.7
기말재고량	136.30	126.54	110.99	109.91	△13.1	△1.0
미국	25.74	25.85	24.28	23.47	△9.2	△3.3
EU15	18.02	14.08	14.25	14.30	1.6	0.4
중국	27.90	25.25	14.75	14.75	△41.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9.22	807.54	793.30	792.06	△1.9	△0.2
기초재고량	98.10	122.83	125.35	125.21	1.9	△0.1
생산량	605.57	605.22	588.38	587.80	△2.9	△0.1
미국	247.88	239.72	255.38	255.38	6.5	0.0
아르헨티나	13.50	16.70	15.50	15.50	△7.2	0.0
EU15	35.30	37.22	38.59	38.89	4.5	0.8
멕시코	17.79	19.00	19.00	19.00	0.0	0.0
동남아시아	15.74	14.66	14.96	14.96	2.0	0.0
중국	132.95	128.09	105.00	105.00	△18.0	0.0
수입량	75.55	79.49	79.57	79.05	△0.6	△0.7
EU15	11.77	10.70	10.68	10.68	△0.2	0.0
일본	16.34	16.12	16.30	16.00	△0.7	△1.8
멕시코	5.62	5.00	5.80	5.80	16.0	0.0
동남아시아	3.12	4.54	4.30	4.40	△3.1	2.3
한국	7.52	8.69	8.50	8.00	△7.9	△5.9
소비량	580.84	602.84	611.85	608.86	1.0	△0.5
미국	185.88	192.71	198.76	198.76	3.1	0.0
EU15	38.95	39.91	40.81	40.81	2.3	0.0
일본	16.44	16.32	16.35	16.05	△1.7	△1.8
멕시코	23.04	23.50	24.40	24.40	3.8	0.0
동남아시아	17.95	19.08	19.35	19.40	1.7	0.3
한국	7.62	8.40	8.80	8.30	△1.2	△5.7
중국	114.30	116.90	120.00	120.00	2.7	0.0
수출량	75.06	82.65	81.51	79.45	△3.9	△2.5
미국	50.31	49.21	57.79	55.88	13.6	△3.3
아르헨티나	7.88	10.00	8.70	8.70	△13.0	0.0
중국	3.34	9.94	4.00	4.00	△59.8	0.0
기말재고량	122.83	125.21	101.89	104.14	△16.8	2.2
미국	45.39	43.57	42.65	44.56	2.3	4.5
아르헨티나	0.71	0.71	0.91	0.71	0.0	△22.0
EU15	3.66	3.70	4.24	4.54	22.7	7.1
중국	51.56	52.91	34.06	34.06	△35.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0.11	2000.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25.05	231.02	235.59	237.74	2.9	0.9
기초재고량	24.78	26.19	24.01	23.78	△9.2	△1.0
생산량	159.83	157.67	166.35	167.34	6.1	0.6
미국	74.60	72.22	75.58	75.58	4.7	0.0
아르헨티나	20.00	20.70	23.00	23.50	13.5	2.2
브라질	31.30	32.50	34.50	34.50	6.2	0.0
중국	15.15	14.29	15.00	15.40	7.8	2.7
수입량	40.44	47.16	45.23	46.62	△1.1	3.1
EU15	16.77	15.75	15.74	16.65	5.7	5.8
일본	4.81	4.90	4.75	4.75	△3.1	0.0
중국	3.85	10.10	7.50	7.80	△22.8	4.0
소비량	160.18	160.96	165.47	167.70	4.2	1.3
미국	48.74	47.50	48.10	48.23	1.5	0.3
아르헨티나	18.27	18.08	18.77	19.03	5.3	1.4
브라질	23.17	23.29	24.10	24.20	3.9	0.4
EU15	17.76	16.34	16.25	17.19	5.2	5.8
일본	4.98	5.06	5.00	5.03	△0.6	0.6
중국	19.93	22.45	23.68	24.28	8.2	2.5
수출량	38.67	46.29	45.37	46.65	0.8	2.8
미국	21.90	26.49	25.86	26.54	0.2	2.6
아르헨티나	3.23	4.13	4.40	4.70	13.8	6.8
브라질	8.93	11.16	10.60	10.80	△3.2	1.9
기말재고량	26.19	23.78	24.74	23.39	△1.6	△5.5
미국	9.48	7.83	9.54	8.72	11.4	△8.6
아르헨티나	6.22	5.11	5.58	5.38	5.3	△3.6
브라질	6.30	4.85	5.20	4.85	0.0	△6.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9, Dec. 12, 2000.

Ⅲ. 국내경제 동향4)

1. 거시지표

-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전기대비로는 3.3% 증가하였음. 그러나 4/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1%에 그쳐 2000년 GDP는 연평균 9.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가 급랭하여 가계지출이 둔화되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지출이 감소하여 최종소비지출은 3/4분기에 4.9%, 4/4분기에는 3.5% 증가하는데 그쳤음.
- 수출은 3/4분기까지 두자리수의 증가율이 이어졌으나 10월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9.6% 수준에 불과함. 내수도 9월부터 한자리수의 증가세로 둔화되었음.

산업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1999	2000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G D P	10.7	9.6	9.2	-	-	-
생 산	24.2	18.3	19.6	24.6	15.0	11.5
출 하	25.1	27.8	19.7	24.8	15.1	9.2
(수 출)	30.6	22.1	32.5	39.6	27.2	12.6
(내 수)	21.1	14.6	10.3	14.1	6.1	6.4
재 고	2.1	11.1	14.6	14.1	14.7	18.8
(전월비)	-	△0.6	6.3	0.3	2.2	5.1
평균가동률	76.5	79.3	80.4	82.0	78.1	76.4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수출과 내수가 모두 둔화됨으로써 제조업 가동율은 8월의 82%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재고증가율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8.8%에 이르렀음.
- 내수침체와 수출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기하강이 우려되고 있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농림어업은 유가상승과 재배면적감소로 2.4% 감소하였고 건설업은 주택경기의 침체와 건설업체의 신용경색 등으로 2.6% 감소함.
 - 제조업은 추석연휴에 따른 일시적 수요증가로 2/4분기보다 다소 성장률이 높았으나 1999년과 금년 상반기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3/4
	4/4	연간	1/4	2/4	
전 산 업	12.8	11.0	13.3	9.5	9.0
농 립 어 업	2.7	4.7	1.6	△1.7	△2.4
제 조 업	27.2	21.8	23.0	16.8	18.1
서 비 스 업	14.4	11.7	11.7	10.2	8.3

자료: 재정경제부

- 통화지표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에서 촉발된 금융권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화(M1) 및 총통화(M2) 증가율이 7월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시중자금이 위험이 낮은 국고채로 집중되고 있어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한 MCT 증가율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통화지표(평잔기준)

(단위: 전년동월대비, %)

	1999	2000				
	연간	7월	8월	9월 ^p	10월 ^p	11월 ^p
M1	12.9	19.0	13.7	14.0	14.2	13.9
M2	27.9	37.8	35.1	30.6	28.5	25.7
MCT	7.7	17.4	15.9	14.2	13.6	12.2
본원통화 ^주	12.1	24.4	21.4	19.0	16.8	14.7

MCT=M2+CD+금전신탁

자료: 한국은행.

주: 증감율

- 시중금리는 10월 이후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상품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11월에는 7,526억원을 순상환하였음.
- 현대건설의 유동성부족문제가 채권은행과의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회사채수익률이 8%대로 하락하였으나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시장인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시중금리의 안정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장기금리인 회사채의 이자율하락은 시중자금사정이 풍부하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합병, 리젠트종금의 불법대출 등에 따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현상임. 여유자금이 좀더 안전한 은행과 국고채에만 집중되고 있어 구조개혁이 완료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금융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시중자금사정

단위: 월평균, %

	1999	2000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콜 금 리	4.9	5.1	5.1	5.0	5.3	5.3
CD유통수익률	6.8	7.2	7.0	7.1	7.0	7.0
회사채유통수익률	8.9	9.1	9.0	9.0	8.7	8.4

자료: 재정경제부

- 대미 달러환율은 3/4분기까지는 하락하였으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10월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11월 평균환율은 1,151.2원이며 12월 23일 1,237원수준.
- 원화의 대미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달러매입에 나서고 있어 환율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분기별 달러 환율

단위: 원(평균환율), %(전년동월대비)

	1999	2000				
	연간	2/4	3/4	9월	10월	11월
대미환율	1,189.5	1,116.2	1,115.3	1,116.5	1,127.3	1,151.2
증감율(%)	△15.0	△6.3	△6.6	△6.7	△6.6	1.1

자료: 재정경제부

-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9%대에 이를 것으로 각 연구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2001년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5.3~6.2% 정도로 예측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3% 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는 금년의 100억달러 내외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금년보다 약 0.2~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가 가속됨으로써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발표 시기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 흑자 (억달러)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국내 기관	LG경제연구원	12	9.4	5.8	2.2	3.0	4.0	4.3	120	107
	한국금융연구원	12	9.0	6.2	2.5	3.5	4.1	4.1	90.2	55.2
	한국은행	12	9.3	5.3	2.3	2.7	-	-	100	45
	삼성경제연구원	11	9.0	5.7	2.4	3.4	4.1	4.3	102	63.6
	산업연구원	12	9.2	5.9	2.2	3.5	-	-	117	87
	KDI	12	9.2	5.1	2.3	3.4	-	-	103	92
국외 기관	OECD	12	8.9	5.8	2.5	3.5	4.0	3.7	-	-

2. 물 가

- 생산자물가는 8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음. 공산품의 생산자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의 폭은 줄어들었음.
- 생산자물가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생산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 데다 유가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이미 금년 상반기와 3/4분기 생산자물가에 반영된 탓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 물가가 9%대에 이르러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비효율에 따른 원가상승압력이 민간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품목별 생산자 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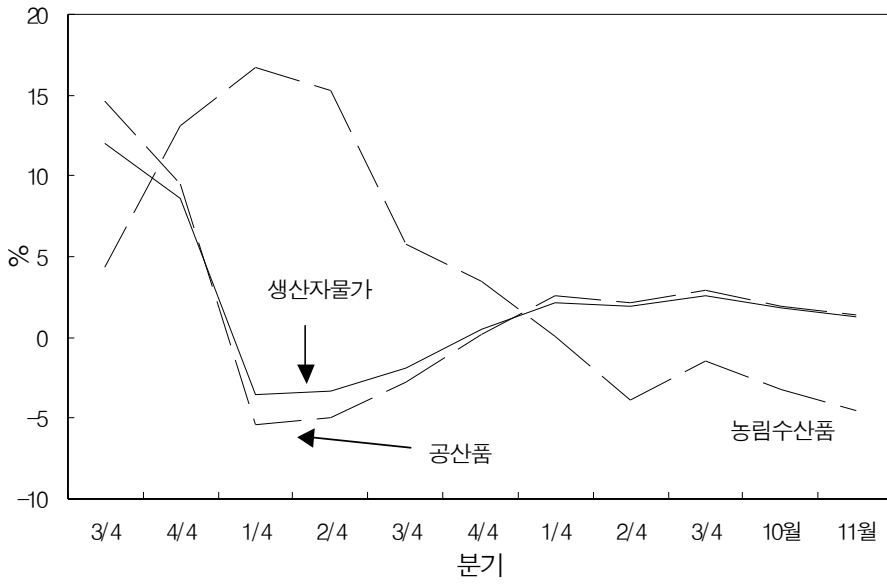
	1999	2000				
	연간	3/4	8월	9월	10월	11월
농림수산물	10.1	△1.5 (△0.4)	△3.6 (△1.0)	△1.3 (2.8)	△3.2 (△4.3)	△4.5 (△1.9)
광 산 품	1.1	5.5 (2.1)	7.3 (3.4)	5.3 (△1.7)	4.2 (△0.4)	1.7 (△0.5)
공 산 품	△3.3	2.9 (0.9)	2.9 (0.3)	2.8 (0.6)	1.9 (0.7)	1.4 (0.2)
전력수도가스	0.5	9.5 (0.5)	9.2 (0.0)	9.2 (0.0)	9.1 (1.3)	7.9 (2.8)
서비스	△2.1	2.0 (1.3)	2.0 (0.2)	1.9 (0.0)	1.5 (△0.1)	1.5 (0.1)
원 재 료	△7.6	20.0 (4.7)	17.7 (△2.1)	15.0 (1.1)	15.1 (5.8)	14.9 (1.2)
중 간 재	△9.2	4.9 (1.1)	4.5 (0.4)	4.3 (0.8)	2.8 (1.0)	2.4 (0.6)
최 종 재	△0.8	△0.6 (0.5)	△1.1 (0.1)	△0.6 (0.9)	△1.4 (△0.4)	△1.2 (0.0)
총지수	△2.1	2.6 (0.8)	2.5 (0.3)	2.5 (0.6)	1.8 (0.2)	1.3 (0.1)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기(월)대비

- 생산단계별로는 최종재가 3/4분기 평균 0.6%, 10~11월에는 1.2~1.4% 하락하였음. 원재료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 2001년에는 생산자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품목별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물가의 상승세 둔화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간수요가 감소하여 10월 2.8%, 11월 2.6% 상승하는데 그쳤음.
- 상품은 0.8%, 서비스는 4.5%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은 10월의 0.5% 하락에 이어 11월에도 0.8% 하락하였음.
 - 서비스 중 개인서비스는 2.5% 상승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9%에 달하였고 집세는 10월의 1.3% 상승에 이어 11월에는 1.7%로 증가세가 빨라졌음.
- 2001년의 소비자 물가는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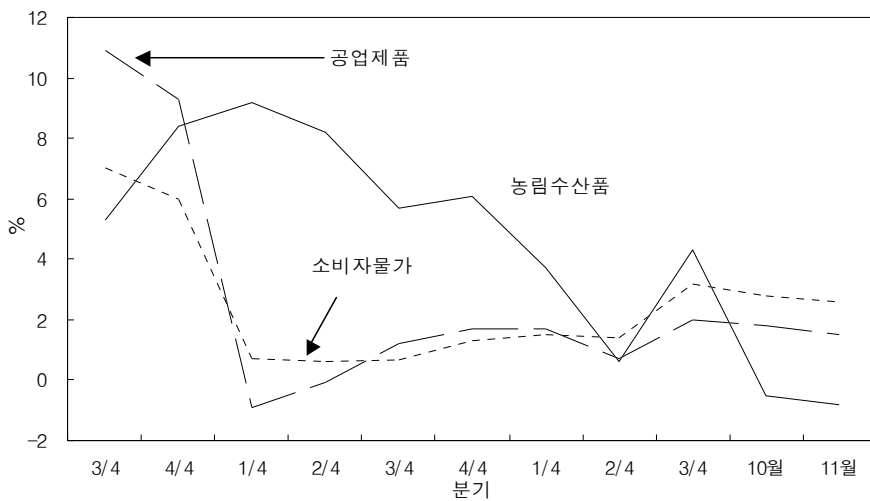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3/4	8월	9월	10월	11월
상 품	2.3	2.6 (2.1)	1.7 (1.0)	3.4 (2.1)	1.1 (△0.8)	0.8 (△1.0)
농림수산물	7.2	4.3 (3.6)	0.9 (1.2)	5.6 (5.5)	△0.5 (△4.2)	△0.8 (△2.7)
공업제품	0.5	2.0 (1.6)	2.1 (1.0)	2.4 (0.6)	1.8 (0.7)	1.5 (△0.4)
서비스	△0.8	3.8 (1.2)	3.7 (0.6)	4.7 (0.9)	4.7 (0.2)	4.5 (0.2)
집세	△4.1	0.4 (0.6)	0.5 (0.2)	0.9 (0.2)	1.3 (0.1)	1.7 (0.3)
공공서비스	2.2	8.9 (3.6)	8.5 (1.9)	11.4 (2.6)	11.0 (0.2)	9.9 (0.5)
개인서비스	△1.0	2.5 (0.1)	2.5 (0.1)	2.5 (0.1)	2.5 (0.0)	2.5 (0.1)
총지수	0.8	3.2 (1.7)	2.7 (0.8)	3.9 (1.5)	2.8 (△0.3)	2.6 (△0.4)

자료: 통계청

주: ()는 전기(월) 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



- 수출물가는 2/4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농림수산품은 10월 16.8%, 11월 17.9% 하락함으로써 두자리수의 하락율을 보임. 수출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용 농산물이 내수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농산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간 상승세를 보이던 원자재도 10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자본재는 전기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률이 소폭에 그쳤음.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품	△5.6	△2.0 (△4.3)	△12.1 (△6.9)	△16.8 (3.1)	△17.9 (△0.2)
공 산 품	△19.0	△1.0 (△1.1)	△0.9 (0.4)	△5.3 (△0.1)	△3.1 (0.7)
원 자 재	△18.7	5.7 (△0.9)	4.7 (1.2)	△3.2 (△0.8)	△2.0 (△0.4)
자 본 재	△22.2	△8.3 (△1.1)	△7.8 (△1.4)	△8.7 (0.3)	△5.4 (0.2)
소 비 재	△17.9	△7.6 (△1.6)	△6.9 (△0.7)	△7.7 (1.0)	△4.8 (1.7)
총지수	△18.9	△1.0 (△1.1)	△1.1 (0.3)	△5.5 (△0.1)	△3.4 (0.7)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기대비

- 수입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데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더욱이 경기불안에 따른 소

비심리의 급랭으로 소비재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수입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다만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물부문보다 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한 수입물가상승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1999	2000			
	연간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17.0	△3.0 (△0.7)	△2.0 (△1.1)	△1.9 (1.9)	0.6 (2.2)
공산품	△14.1	3.2 (△0.7)	1.6 (0.8)	△2.6 (△0.1)	△0.8 (1.0)
원자재	△13.2	12.8 (0.0)	9.4 (2.8)	4.3 (0.4)	6.0 (1.0)
자본재	△8.3	△4.7 (△1.4)	△5.3 (△0.9)	△7.7 (△0.1)	△5.6 (1.5)
소비재	△8.5	△1.3 (△1.7)	1.7 (4.0)	1.2 (1.1)	3.4 (△0.4)
총지수	△12.1	8.8 (△0.4)	6.4 (2.3)	2.2 (0.4)	3.9 (1.0)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는 전기대비

3. 소비

- 소비는 5월의 도소매 판매가 14.7% 상승한 이후 증가율이 절반이하로 둔화되어 10월에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0월에 8.3%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휴대용 전화기의 출하가 증가하여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음.
 - 업종별로는 반도체, 조립금속, 운송장비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사무용기계는 큰 폭의 호조(55.7%)를 보였음.

- 수출용 출하는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하는 데 그쳤음.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0				
	2/4	3/4	8월	9월	10월
도소매 판매	12.4 (3.5)	7.6 (△1.3)	8.1 (△2.8)	6.1 (5.4)	4.9 (0.5)
내수용 소비재출하	13.5	△1.8	2.5	△8.3	△0.1
(내구재)	22.0	△16.5	△15.7	△23.6	△9.7
(비내구재)	9.2	7.3	13.6	1.6	6.2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주: ()는 전기(월)대비

-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분기의 10.9%를 정점으로 3/4분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었음(8.6%).
 - 비목별로는 보건의료비가 4.8%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 비목에 걸쳐 지출이 증가하였음.
 - 주거비 관련 비목은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6.3% 증가하였으나 가을이사철이 끝나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세가격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3/4분기에는 3.4% 증가하는 데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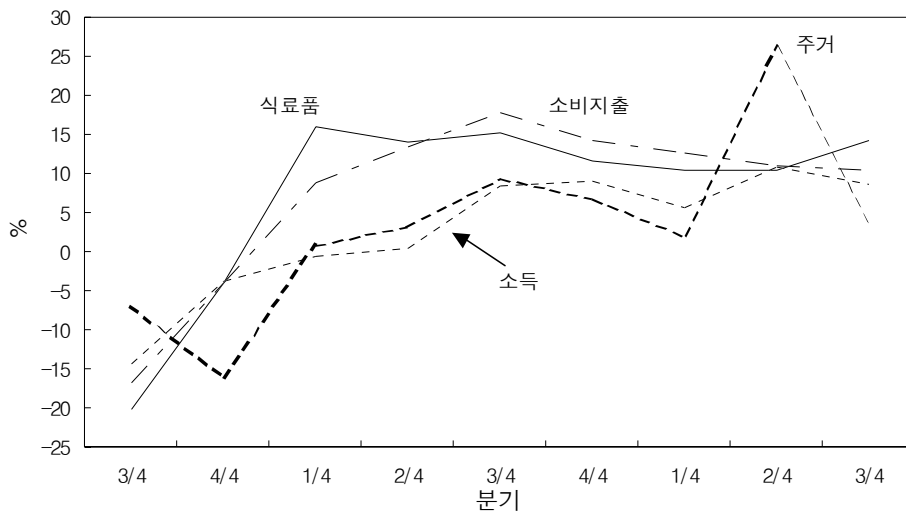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1/4	2/4	3/4
소득	4.3	5.7	10.9	8.6
소비지출	13.5	12.7	11.0	10.4
식료품	14.1	10.5	10.4	14.2
주거	5.1	2.1	26.3	3.4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용

- 11월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0.2% 증가하였음. 이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광공업의 고용흡수 능력이 둔화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업,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경제활동인구는 22,164천명으로 전월보다 0.8%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1% 감소한 21,366천명임.
- 농림어업 취업자는 10월보다 10% 감소한 2,282천명이며 건설업의 취업자는 1.9% 감소한 1,658천명임.
-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데다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하여 실업률은 2001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고용활동

단위: 천명, %

	1999	2000			전월대비 증감
	연간	9월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1,634	22,236	22,333	22,164	△0.8
(경제활동참가율)	60.5	61.4	61.6	61.1	△0.5
취업자	20,281	21,432	21,573	21,366	△1.0
·농림어업	2,349	2,545	2,529	2,282	△10.0
·광공업	4,026	4,299	4,342	4,358	0.4
(제조업)	4,006	4,280	4,325	4,341	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3,906	14,589	14,701	14,726	0.2
(건설업)	1,476	1,655	1,690	1,658	△1.9
실업자	1,353	804	760	797	4.9
실업률(계절조정)	6.3	4.0	3.9	4.1	0.2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IV. 농촌경제 동향⁵⁾

1. 농산물가

- 10월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0.3% 전월대비 1.5% 상승하는데 그쳤음. 미곡(4.1%), 맥류(4.0%), 잡곡(7.6%) 등의 곡물(2.8%)과 특용작물(6.9%), 부산물(46.6%)의 판매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서류(Δ 51.8%), 채소(Δ 30.5%), 화훼부류(Δ 38%)의 판매가격은 하락하였음.
-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은 3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전년동월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채소는 9월의 태풍 피해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상승을 제외하면 10월까지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채소류의 가격하락폭이 큰 것은 경기둔화로 소비심리가 냉각된 데다 비교시점인 1999년의 배추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으며 오이의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대비 약 48% 하락하여 1999년은 물론 평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
- 청과물 중 과실류는 배는 1999년의 가격이 매우 높았던 결과 금년산 공급의 과잉을 초래하였고 소비마저 부진하여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기타농산물 중 화훼류는 2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월 현재 1999년의 약 60~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이는 가을 및 겨울철 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 및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임.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9.10	2000.9	2000.10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19.3	117.8	119.6	0.3	1.5
곡 물	323.3	130.5	137.1	134.2	2.8	△2.1
미 곡	288.7	132.6	141.0	138.1	4.1	△2.1
맥 류	13.6	110.8	115.2	115.2	4.0	0.0
잡 곡	3.7	116.4	125.4	125.3	7.6	△0.1
두 류	7.8	139.8	139.4	134.2	△4.0	△3.7
서 류	9.5	92.9	53.4	44.8	△51.8	△16.1
청 과 물	296.6	126.8	118.9	96.8	△23.7	△18.6
채 소	208.5	136.4	122.8	94.8	△30.5	△22.8
과 실	88.1	104.1	109.7	101.4	△2.6	△7.6
축 산 물	322.3	104.1	99.6	97.7	△6.1	△1.9
가 축	294.7	103.1	97.1	95.3	△7.6	△1.9
유 란	27.6	114.9	125.9	123.7	7.7	△1.7
기타농산물	57.8	102.2	106.1	104.9	2.6	△1.1
특용작물	48.8	100.0	109.7	106.9	6.9	△2.6
화 훼	6.7	117.2	63.0	72.7	△38.0	15.4
부 산 물	2.3	106.3	155.8	155.8	46.6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10월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8%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상승폭이 큰 부류는 보건의료(23.4%), 가계광열(13.8%), 도정료(12.6%), 농기계임차(7.3%) 등임. 하락폭이 큰 부류는 주거비(△4.5%)이나 전반적으로 하락한 부류보다 상승한 부류가 더 많았음.
- 가계광열비의 높은 상승은 동절기가 시작된 탓도 있지만 국제 고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전기·가스 및 유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더 큰 원인임.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9.10	2000.9	2000.10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25.2	129.4	129.9	3.8	0.4
가 계 용 품	524.9	121.8	128.7	129.1	6.0	0.3
식 료 품	97.6	122.2	126.4	123.3	0.9	△2.5
피 복 비	39.1	115.6	116.0	118.6	2.6	2.2
주 거 비	48.7	97.7	93.6	93.3	△4.5	△0.3
가 계 광 열	35.6	169.4	183.3	192.7	13.8	5.1
보 건 의 료	69.8	120.2	147.8	148.3	23.4	0.3
교 육 교 양 오 락	121.5	123.6	131.0	131.0	6.0	0.0
교 통 통 신	76.5	117.5	119.2	119.3	1.5	0.1
기 타 잡 비	36.1	118.5	118.1	119.0	0.4	0.8
농 업 용 품	403.7	128.4	128.2	128.8	0.3	0.5
종 자 류	17.4	100.7	100.7	100.7	0.0	0.0
비 료 류	24.3	149.6	149.6	149.6	0.0	0.0
농 약 류	24.6	130.3	129.4	129.4	△0.7	0.0
농 기 구	83.6	153.8	154.1	154.1	0.2	0.0
영 농 광 열	13.9	173.9	173.0	173.0	5.0	0.0
가 축 류	129.9	131.6	123.4	125.3	0.5	1.5
사 료 류	77.7	107.5	104.9	104.9	△2.4	0.0
영 농 자 재	32.3	109.6	115.5	115.5	5.5	0.0
농 촌 임 료 금	71.4	132.8	142.0	141.9	6.9	△0.1
농 업 노 임	31.7	135.7	142.4	142.3	4.9	△0.1
기 타 임 금	2.8	104.0	110.9	110.8	6.5	△0.1
도 정 료	8.2	158.6	178.6	178.6	12.6	0.0
농 기 계 임 차	28.7	125.0	134.1	134.1	7.3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농업용품 중에서는 영농광열비가 5%, 영농자재비가 5.5% 상승하였으며 사료류는 2.4% 하락하였음.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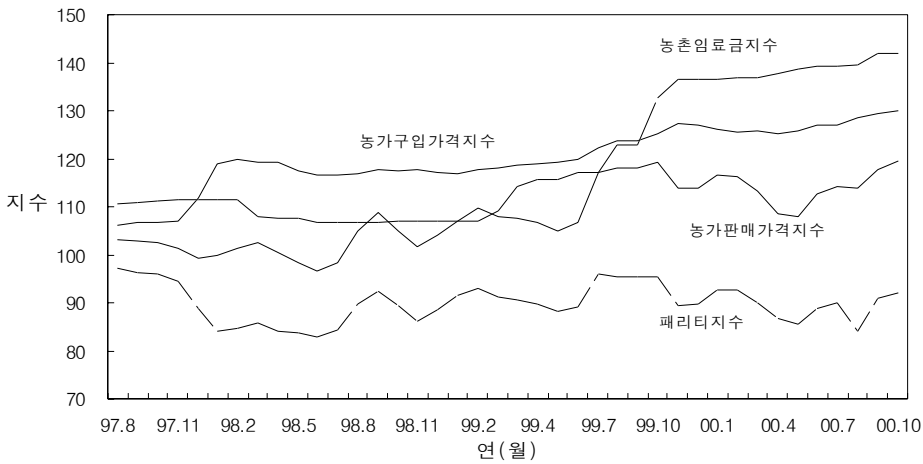
- 10월의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3.4%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1.1% 개선되었음. 농가구입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인 반면 판매가격은 금년 중반의 고랭지배추와 고랭지무의 폭락, 과실가격 하락,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 악재가 겹쳐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향후 공공요금 인상과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농업 경영비 증가 및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예상되어 2001년에도 농가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가교역조건 변화

	1999.10	2000.9	2000.10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19.3	117.8	119.6	0.3	1.5
농가구입가격지수(B)	125.2	129.4	129.9	3.8	0.4
패리티지수(A/B*100)	95.3	91.9	92.1	△3.4	1.1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산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주요 품목의 소득

- 주요 20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소득을 추정한 결과 1/4분기에 9.2% 증가, 2/4분기에 4.1% 감소, 3/4분기에 0.3% 증가, 4/4분기에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4분기에는 봄배추 가격이 평년의 두배, 오이가격은 전년대비 26.1% 상승하였으나 토마토, 딸기, 마늘, 봄감자 등 다수 품목의 가격과 면적이 하락 또는 감소하여 경종소득은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3/4분기에는 토마토(31.9%)와 대파(24.1%)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고랭지배추(Δ 52.2%)와 포도(Δ 18.2%)의 소득이 감소하여 경종소득이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4/4분기에는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쌀소득이 5.4% 증가하였으나 사과, 배, 감귤, 배추, 오이 등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하여 경종소득이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쌀은 면적이 0.6%, 단수가 0.4% 증가하였고 가격도 3.9% 상승하여 소득은 5.4% 증가하였음.
- 과일류 중 감귤은 소득이 전년대비 36.4%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 이는 가격이 크게 하락(Δ 4.9%)하였고 단수도 10.9%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수입이 13.9% 감소하였기 때문임. 배는 성목면적이 13.4% 늘어났으나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29.2% 하락함으로써 소득은 36.3% 감소하였음.

분기별 주요 품목의 소득 변화

단위: %

	품목	단수	가격	면적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1/4	오이	1.6	△6.0	3.9	△0.8	14.9	△6.7
	대파	-	△38.1	16.0	△28.2	23.3	△48.2
	딸기	-	9.2	12.1	22.4	9.3	31.0
소계					10.2	11.8	9.2
2/4	오이	△0.1	26.1	1.8	28.2	12.6	42.4
	대파	-	△0.6	3.7	3.1	10.2	0.3
	수박	2.3	△6.8	5.6	0.7	9.0	△4.6
	참외	3.7	△2.4	1.6	2.7	7.4	0.1
	봄배추	5.6	95.3	4.1	114.6	10.8	215.3
	봄무	△1.0	13.0	5.0	17.6	10.4	22.0
	양파	△9.8	4.8	4.0	△1.5	6.3	△7.1
	마늘	△7.4	△11.2	6.0	△12.9	9.9	△28.1
	봄감자	△3.9	△16.0	△11.3	△28.4	△7.0	△44.1
	보리	11.0	4.5	△11.9	4.6	△1.6	8.6
딸기	-	△28.4	12.1	△19.8	13.1	△45.5	
토마토	-	△41.0	△1.9	△42.1	△1.2	△79.7	
소계				0.1	6.5	△4.1	
3/4	오이	△2.2	12.4	△1.6	8.1	4.2	11.1
	대파	-	19.3	0.4	19.7	8.5	24.1
	고추	△8.8	14.7	△1.5	3.1	3.0	3.1
	고랭지무	2.4	4.4	1.8	8.6	6.6	9.8
	고랭지배추	2.2	△32.3	△8.0	△36.3	△3.8	△52.2
	수박	1.2	21.9	△6.1	15.8	△2.0	29.8
	참외	△5.6	30.8	△7.0	14.7	△1.5	23.7
	포도	4.0	△12.4	△3.4	△12.0	1.5	△18.2
	토마토	-	22.0	△1.9	19.7	2.2	31.9
소계				0.7	1.7	0.3	
4/4	쌀	0.4	3.9	0.6	4.9	3.8	5.4
	사과	1.8	△21.4	△8.2	△26.5	△28.0	△24.8
	배	3.9	△29.2	13.4	△16.6	19.5	△36.3
	단감	5.6	△22.1	△0.4	△18.1	4.6	△30.8
	감귤	△10.9	△4.9	1.7	△13.9	5.7	△36.4
	콩	△1.5	△3.6	△1.0	△18.1	1.9	△24.7
	가을무	2.3	△22.8	23.2	△2.8	26.8	△13.2
	가을배추	12.8	△58.2	26.9	△40.2	30.7	△60.3
	대파	1.5	0.5	0.6	2.6	6.1	1.2
오이	0.4	△48.0	△0.1	△47.8	5.1	△80.3	
소계				△0.4	2.2	△1.6	

주: 이 수치는 잠정자료를 이용하여 추산된 것이므로 공식 발표와는 다를 수 있음

- 가을배추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60.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1999년의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두배이상 높았기 때문임. 12월 현재 가을배추의 가격은 평년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임. 오이는 가격이 전년의 절반수준인데다 경영비가 5.1% 증가하여 소득은 80.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4. 농업인력

- 11월의 농림업 취업자수는 2,188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9%, 전월대비 10.5% 감소하였음.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농한기가 시작된 데다 농업임금은 상승한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한 품목이 많아 농업부문의 고용이 정체되었기 때문임.

농림업 취업자수동향

단위: 천명

	1999	1999.11	2000		증감률(%)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경제활동인구	21,634	22,087	22,333	22,164	0.3	△0.8
전산업취업자	20,281	21,116	21,573	21,366	1.2	△1.0
농림업취업자	2,264	2,375	2,444	2,188	△7.9	△10.5

자료: 통계청

- 9월의 귀농가구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63.8%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05% 증가하였음. 1999년 대비 귀농가구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IMF 금융위기로 1999년의 귀농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데 원인이 있음. 전월대비로는 귀농가구수가 200% 이상 증가하였으나 절대수가 적어 증가율 자체만으로 크게 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귀농가구 동향

단위: 호

	1999	2000				증감율	
	9월	1~9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귀농가구수	177	996	37	21	64	△63.8	205.0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5. 농산물 수출입

5.1. 수출동향

- 11월까지 누계기준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1999년보다 7.9%가 감소한 1,427.4백만달러에 그쳤음. 농산물 수출은 14%가 증가한 1,016.1백만달러였으나 축산물은 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61.4%가 감소한 144.2백만달러를 기록함. 임산물의 수출은 6.5%가 감소하여 267.1백만달러에 그침.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1999. 1~11월	2000. 1~11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3,229.7	2,910.1	2,778.7	△4.5
농림축산물	1,713.5	1,550.3	1,427.4	△7.9
농축산물	1,409.8	1,264.7	1,160.3	△8.3
- 농산물	1,002.0	891.5	1,016.1	14.0
- 축산물	407.8	373.2	144.2	△61.4
임 산 물	303.8	285.6	267.1	△6.5
수 산 물	1,516.2	1,359.8	1,351.3	△0.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15.3% 증가한 414.9백만달러였으며 축산물 수출은 68.2%가 감소한 108.5백만달러였음.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54.5%가 증가하여 51.8백만달러, 임산물 수출은 15.9%가 증가한 54.4백만달러였음.
- 품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농림축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구제역의 여파로 전년 동기간 대비 73.4% 감소한 82,719천달러에 그쳤으며 감귤의 수출도 42.6%가 감소하여 3,697천달러에 그쳤음.
- 사과(83.9%), 배(32.3%), 딸기(16.3%), 토마토(55.8%), 고추(99%), 버섯(26.7%) 등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목의 다수가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수출금액이 감소한 품목은 홍삼(△7.6%), 백삼(△2.8%), 감귤(△42.6%) 등임. 특히 인삼류는 홍콩시장의 부정유통 단속의 여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인삼업체인 Rocky Mountain Jinseng이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Wall Mart)와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홍콩과 동남아시아시장에 대한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주 수출국이 일본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의 경우 일본내에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대일 수출작목 및 금액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임.
- 중국의 경우에도 세계최대의 과실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이 활발하였던 것은 대만 및 일본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반사효과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이 국제수의검역국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정받아 육류수출을 재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청정국으로 복귀하더라도 일본 및 동남아 수출시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대만의 경우에는 최근 구제역이 재발하여 당분간 자국산 육류의 수출 및 국내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품목	수출액(천달러)					증감율(%) '00/'99
	1997	1998	1999	1999.1~11	2000.1~11	
돼지고기	243,899	311,777	340,451	311,341	82,719	△73.4
닭고기	1,227	1,605	2,116	1,891	2,612	38.1
김치	39,655	43,931	79,245	70,210	71,760	2.2
홍삼	35,443	31,801	41,419	29,439	27,195	△7.6
백삼	7,863	7,804	6,091	3,108	3,020	△2.8
사과	6,345	3,538	1,674	769	1,414	83.9
배	9,180	7,731	11,763	10,880	14,390	32.3
감귤	2,955	5,045	6,593	6,437	3,697	△42.6
딸기	2,743	4,096	7,857	7,650	8,896	16.3
토마토	3,742	7,592	17,504	13,476	20,996	55.8
오이	3,184	5,489	9,293	6,883	7,343	6.7
고추	5,067	6,890	15,153	11,880	23,642	99.0
백합	2,054	3,358	3,058	2,609	3,427	31.4
장미	48	3,420	6,471	5,585	9,061	62.2
버섯류	1,039	1,771	4,423	4,069	5,156	2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2. 수입동향

- 11월까지의 누계기준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7,780.4백만 달러를 기록함. 축산물은 39.2% 증가하였으며 농산물도 10%를 상회하는 수입증가세를 보임.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1999.1~11월	2000.1~11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8,620.4	7,738.1	9,051.3	17.0
농림축산물	7,452.2	6,696.4	7,780.4	16.2
농축산물	5,926.5	5,306.9	6,172.7	16.3
- 농산물	4,681.2	4,198.4	4,629.5	10.3
- 축산물	1,245.2	1,108.5	1,543.2	39.2
임 산 물	1,525.7	1,389.5	1,607.7	15.7
수 산 물	1,168.2	1,041.8	1,270.9	22.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65.6% 증가한 731,119천달러, 대두가 14.4% 증가한 297,906천달러를 수입하였으며 밀은 438,876천달러로 12%가 감소하였음. 그외 닭고기는 44.6% 증가한 59,159천달러, 옥수수 854,053천달러로 6.7%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는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이 490,596천달러로 83.4%가 증가하였으며 닭고기의 경우에도 미국산이 27.5% 증가한 39,771천달러를 기록함.
- 열대과일은 3/4분기와 마찬가지로 오렌지가 수입을 주도하고 있음. 11월까지 오렌지 수입은 전년대비 53.1%가 증가한 111,898천달러를 수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품목	수입액(천달러)					
	1997	1998	1999	1999.1~11	2000.1~11	증감율(%)
쇠고기	479,844	268,402	505,247	441,394	731,119	65.6
돼지고기	236,115	142,623	226,425	208,717	244,034	16.9
닭고기	31,227	19,735	45,940	40,916	59,159	44.6
옥수수	1,253,772	913,829	887,467	800,646	854,053	6.7
밀	594,236	663,534	533,892	498,946	438,876	△12.0
대두	514,629	379,351	312,015	260,329	297,906	14.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입함. 이중 미국산은 70,422천달러로 두배가 넘는 108.1% 증가하였음. 금년산(2000/01) 미국 오렌지는 수확량이 약 12% 감소할 전망이나 당도는 1도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2001년에는 오렌지 수입량이 금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오렌지 수입량 자체는 감소하더라도 당도가 금년보다 높기 때문에 금년산 국내 과일 중 중·하품과의 가격경쟁보다 상품(上品)과의 품질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입산 오렌지의 가격은 국내 도매가격이 18kg기준 3만 2천~3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열대과일 수입동향

품목	수입액(천달러)					
	1997	1998	1999	1999.1~11월	2000.1~11월	증감율(%)
오렌지	92,685	68,605	82,785	73,073	111,898	53.1
키위	14500	5192	7521	6,988	8,125	16.3
포도	23,152	13,172	16,059	33,134	29,941	△9.6
파인애플	22,096	11,116	19,574	17,563	17,597	0.2
바나나	58,368	37,801	71,856	68,861	71,634	4.0
레몬	5,265	3,367	4,449	4,014	4,680	16.6

5.3. 중국농산물 수입동향

-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123.9% 증가한 1,018,322천달러, 임산물 수입은 34.1% 증가한 257,175천달러이며 축산물 수입은 53.2% 증가한 20,674천달러임.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농림축산물 수출입차는 1,621,252천달러의 적자를 보였음.
- 품목별로 보면 양과는 24.8%가 감소한 1,087천달러였으며 마늘은 긴급관세의 영향으로 78%가 감소한 3,270천달러임. 그러나 옥수수 97,383천달러보다 무려 510%가 증가한 594,079천달러를 수입하였음.
- 최근 중국은 길림성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질도 한국·일본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 당국도 WTO가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옥수수 생산을 줄이고 쌀생산으로 전환을 유도중이어서 중국산 쌀의 수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고추의 경우에도 국산 건고추에 비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되며 관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수분을 살포하고 냉동고추 형태로 변조하여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과일의 경우는 세계 최대의 과실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당도와 가격경쟁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분석됨. 사과, 배 등 중국산 과실이 수입될 경우 오렌지와 더불어 국내 과일 생산농가의 경영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1995/11	1996/11	1997/11	1998/11	1999/11	2000/11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382,023	493,546	804,804	583,024	454,865	1,018,322	123.9
축산물	31,584	36,302	43,911	10,540	13,491	20,674	53.2
임산물	171,578	220,485	272,921	123,430	191,824	257,175	34.1
수산물	113,440	191,134	251,502	165,363	359,939	433,953	20.6
계	698,625	941,467	1,373,142	882,357	1,020,119	1,730,124	69.6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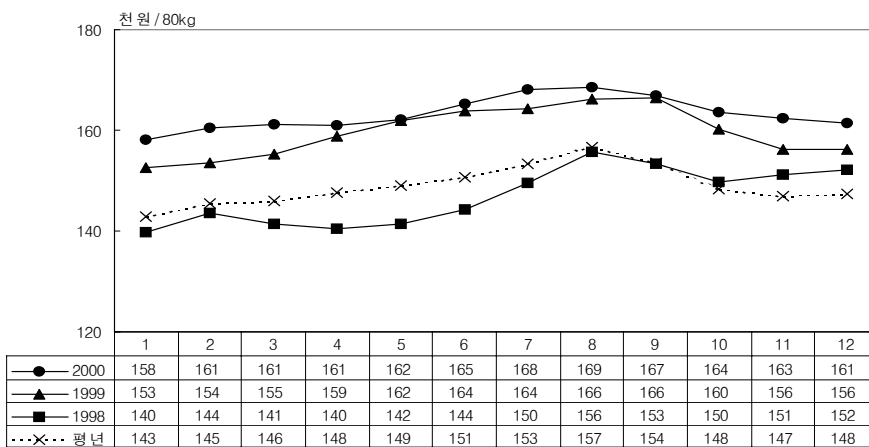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¹⁾

1.1. 쌀

- 2000년 쌀 생산량은 529만 1천톤으로 전년대비 0.5%, 평년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올해 목표량 508만 3천톤 보다 4.1% 증가함.
- 2001년 추곡약정 수매가격은 2000년산 보다 3% 인상된 5만 9,860원 (조곡, 40kg)으로 의결됨.
-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 도매가격(호남미, 상품 기준)은 12월에는 16만 1천원/80kg으로 하락함. 12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평년동기대비 9%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3% 상승한 수준임.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단순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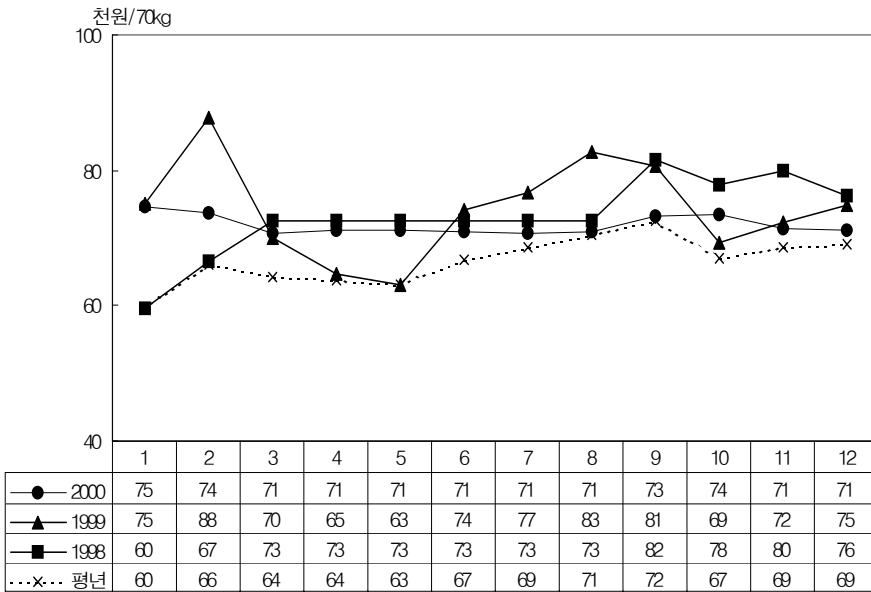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taehun@krei.re.kr)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1.2. 보 리

- 2000 양정자료에 따르면 보리쌀 총소비량은 34만 2천톤(식용 7만 1천톤, 가공용 22만 9천톤, 기타 4만 2천톤)으로 추정되며 1인당소비량은 1.5kg으로 추정됨.
- 총공급량은 51만 9천톤으로 이중 전년이월량이 19만 5천톤, 생산량이 18만 1천톤, 수입량이 14만 3천톤으로 추정되며, 재고량은 17만 7천톤으로 추정됨.
- 2000년 3월 이후 7만 1천원/70kg(쌀보리, 상품 기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던 보리가격은 10월에 7만 4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11월에 다시 7만 1천원으로 하락함. 12월 가격 역시 7만 1천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평년동기대비 3%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5% 하락하였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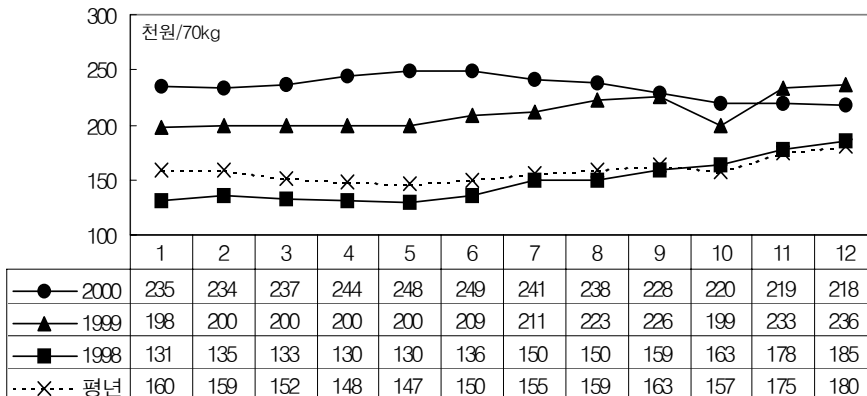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7~99년의 단순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2000 양곡연도 콩 총수요량은 181만 5천톤으로 이중 식량용이 7만 6천톤, 가공용이 36만 6천톤, 사료용이 135만 9천톤 기타가 1만 4천톤을 차지함. 총공급량은 199만 3천톤으로 이중 수입량이 179만 8천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00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17만 8천톤으로 추정되며 곡물자급도는 6.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00년 6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대두 도매가격은 12월 현재 70kg당 21만 8천원(상품 기준)으로 하락하였으며 10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됨. 2000년 12월 도매가격은 평년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8% 낮은 수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단순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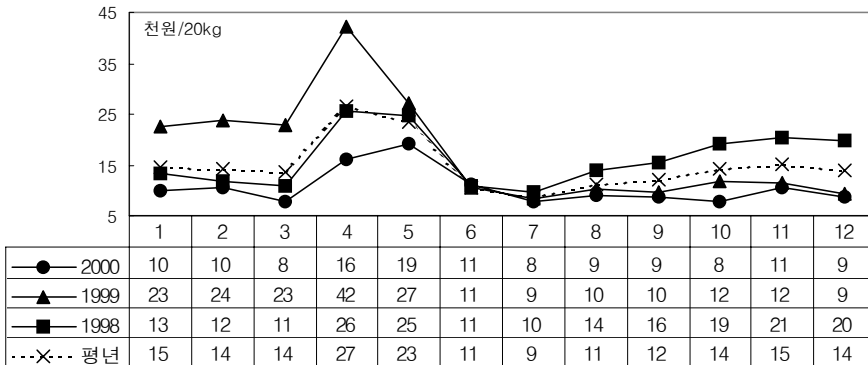
1.4. 감 자

- 2000년 1~11월 감자 수입량은 4만 9천톤으로 지난해 이 기간의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누계 기준으로 불

때 수입량의 73%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2000년 5월에 1만 9천원/20kg(상품)까지 상승한 감자 도매가격은 6월부터 하락하여 12월 현재 9천원/20kg(상품)에 이름. 2000년 12월 현재 감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37% 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6% 하락한 수준임.

감자 도매가격 동향 (슈퍼리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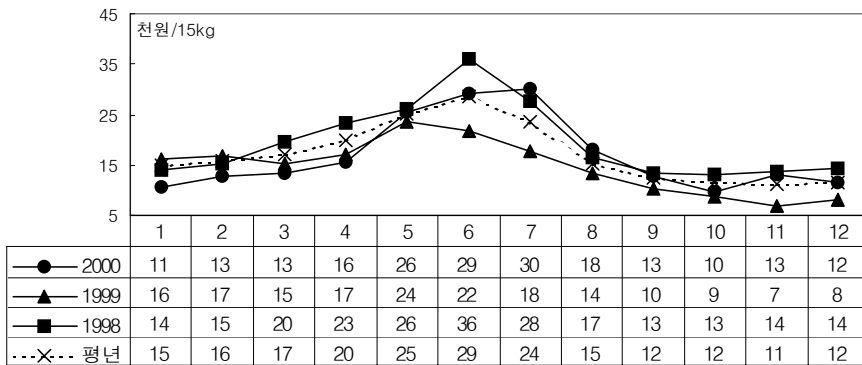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7~99년의 단순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고구마

- 2000년 고구마 재배면적은 1만 6천ha로(품관원 7월조사치) 지난해 이 기간 조사치 2만ha보다 4천ha 증가함.
- 2000년 1~11월 고구마 수입량은 61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수입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됨.
- 고구마 도매가격은 2000년 7월에 3만원/15kg(상품)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현재 15kg당 1만 2천원에 이름. 2000년 12월 현재 고구마 도매가격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하였으며 평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단순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6. 사료곡물

- 2000년 1~11월 누계기준 옥수수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2.7% 하락함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량은 603만 1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반면 사료용 밀의 경우 동기간에 수입단가가 11.6% 상승하여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7.9% 감소한 75만 2천톤이 수입됨.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단위			1996	1997	1998	1999	1999.1~11	2000.1~11
옥수수	수입량	천톤	6,802	6,524	5,335	6,122	5,480	6,031
	단가	US\$/톤	179	148	125	108	108	105
	수입액	백만US\$	1,217	965	667	661	593	635
밀	수입량	천톤	958	1,096	2,349	1,902	1,788	752
	단가	US\$/톤	201	141	115	98	96	109
	수입액	백만US\$	192	154	271	186	174	82
계	수입량	천톤	7,759	7,620	7,684	8,024	7,269	6,784
	단가	US\$/톤	182	147	122	106	106	106
	수입액	백만US\$	1,410	1,119	938	847	768	71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체 사료용 곡물은 2000년 1~11월 누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678만 4천톤이 수입됨.

2. 채소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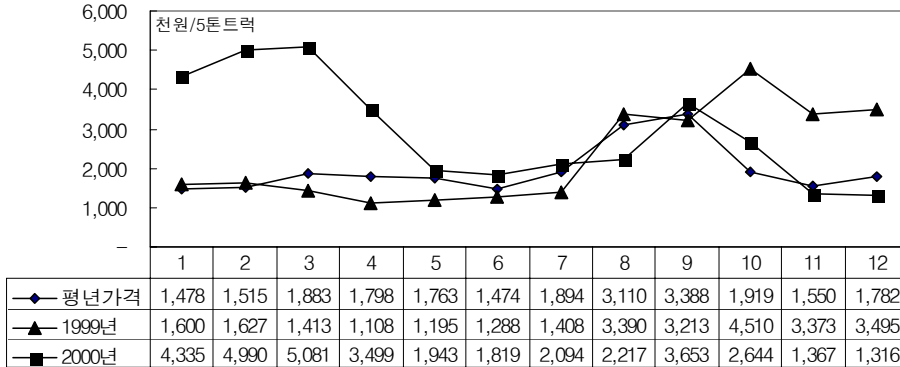
2.1 배추

- 배추의 4/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178만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는 33% 낮은 수준이고, 평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 11월 가격은 10월 보다 28% 낮았고, 평년 같은 시기보다는 12% 낮았음. 12월 가격은 평년 같은 시기보다 26% 낮은 수준임.
- 이렇게 가격하락의 원인은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16% 많은 177만톤 내외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금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14% 증가한 1만 6,413ha이고, 단수 또한 평년보다 2% 가량 많은 10,800kg 내외로 추정됨.
- 금년 월동배추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월동배추의 예상단수는 11월 이후 기상이 좋아 작년보다 약 22% 높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월동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상재해가 없을 경우, 내년 1~3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160만원(10kg 망당 2,000~3,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경기·강원, 영남이 각각 3% 내외 감소하고, 충청 5%, 호남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이 자료는 김연중 책임연구원(yjkim@krei.re.kr), 서대석 연구원(dssuh@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내년 봄배추의 월별 정식의향면적을 보면, 2월까지 정식하는 시설 면적은 작년동기보다 5%, 3월 이후의 노지면적은 2% 내외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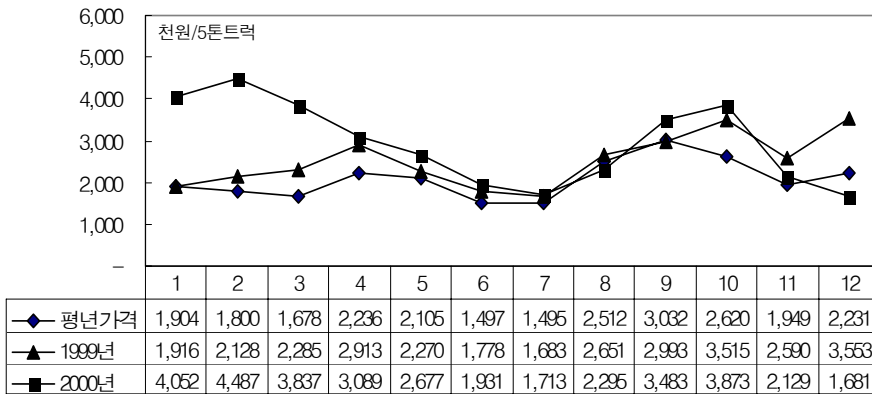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2 무

- 무의 11월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13만원(상품 기준)으로, 10월보다는 45% 낮았고, 평년 같은 시기보다는 9% 높았음. 12월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23만원(상품 기준)으로 11월보다는 21% 낮았고, 평년 같은 시기보다는 25% 낮은 수준임.
- 가격하락의 원인은 금년 가을무 생산량이 평년보다 5% 가량 많은 86만 톤 내외로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임.
 - 금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2% 증가한 1만 4,627ha이고, 단수 또한 평년보다 2% 가량 많은 5,900kg 내외로 추정됨.
- 고창, 영암, 나주 등지의 가을무 저장계획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많고, 제주의 월동무 재배면적도 크게 증가하여 내년 1~4월 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내년 1~4월의 저장무 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200만원(15kg 마대 당, 4,000~5,000원)대의 평년가격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 보면, 경기·강원이 6% 증가하고, 충청과 호남이 4%, 영남이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별 파종의향면적을 보면, 2월까지 파종하는 시설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3월 이후의 노지면적은 3%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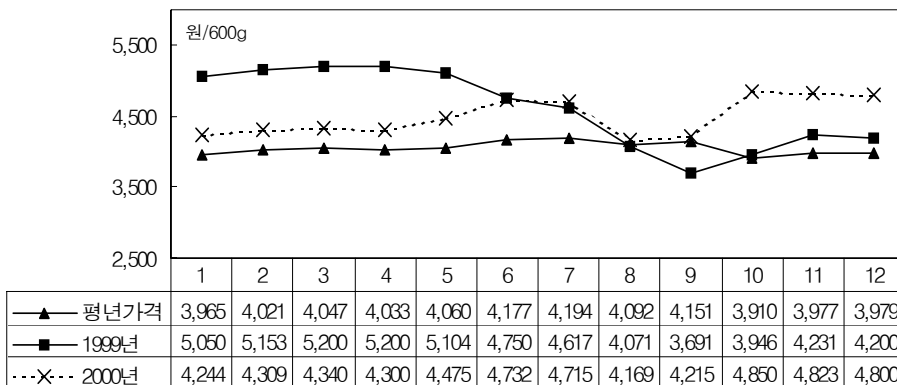
2.3. 고 추

- 고추의 4/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4,824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는 11% 높고, 평년 4/4분기보다 22%, 작년 동기보다 17% 높은 수준임.
- 작년과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았던 것은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이 줄

었고 작황도 부진하였기 때문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7만 4,471ha로, 이는 작년보다 1.5%, 평년보다는 7% 적은 수준이며, 10a당 단수는 작년대비 약 9% 감소한 290kg이었음.
- 따라서 금년 생산량은 19만 3,786톤으로, 작년 생산량보다 10% 적고, 평년 생산량보다는 5% 적음.
- 우리 나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중국의 익도산 고추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아, 생산량은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4만톤 내외로 추정됨.
- 9~10월 중국 산둥성의 산지가격은 톤당 12,000원(1,450달러)이었으나, 금년산 출하가 시작된 11월에는 8,000원(970달러)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9,000원(1,090달러)보다 약 10% 낮은 수준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따라서 12월에 수입될 중국산 고추의 민간수입원가는 4,700~4,900원, 도매원가는 4,900~5,100원으로 9~10월 가격에 비하여 약 14%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산 고추의 연간 수입량(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은 예년보다 많은 1만 5천톤(MMA 포함)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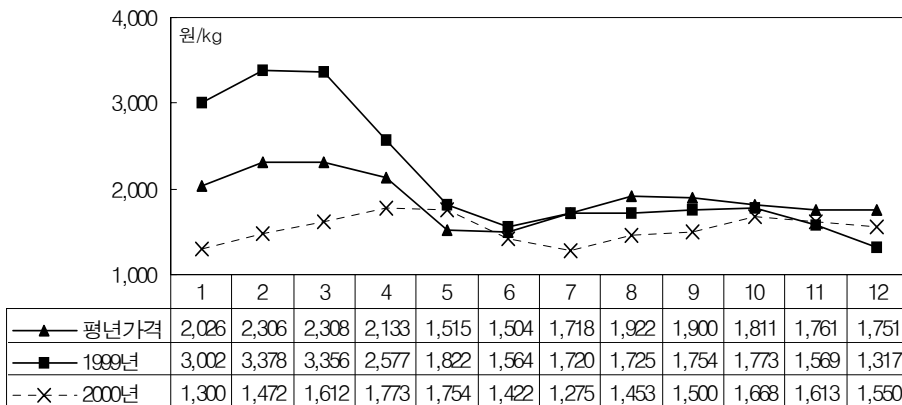
2.4. 마늘

- 마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61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작년 4/4분기보다는 4%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9% 낮은 수준임.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보다 2% 적은 47만 4천톤이었으나, 저온저장 입고량은 작년보다 5% 많은 10만 6천톤으로 조사됨. 저온저장 입고량 중 11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16% 적은 2만 8천톤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격이 낮아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며, 11월 20일 현재의 재고량은 작년보다 15% 많은 7만 8천톤 내외로 추정됨.
-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중국 산둥성의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면적이 감소하고 작황도 나빠, 작년보다 20~30% 감소한 20~22만톤이고, 10월말 현재 재고량은 9만톤 내외로 추정됨(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동향조사보고」, 2000. 10월).
- 수확 직후 kg당 0.90元(110달러/톤)에 거래되던 농가판매가격은 수출 기대감에 따라 최근 1.50元(180달러/톤)까지 상승함.
- 한·중 마늘협상(7월 31일) 결과, 금년의 수입쿼터는, MMA 1만 1,895톤(신선·냉장·건조·일시저장),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냉동·초산마늘(TQ : 관세할당물량) 2만 105톤, 계 3만 2천톤임.
- 그러나 금년분 MMA 물량은 전량 건조마늘(2,973톤)로 수입하여 정부가 보관할 계획이므로 내년 4월까지 국내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냉동·초산마늘은, 중국이 고시한 최저수출가격이 톤당 630달러(FOB)로 도매원가가 kg당 1,200~1,300원이나 되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신선·냉장마늘의 도매원가는 kg당 2,700원, 깬마늘 4,000원, 건조마늘 8,800원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 이들의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국내산 재고량이 많고 경기 침체로 수요도 감소하여, 마늘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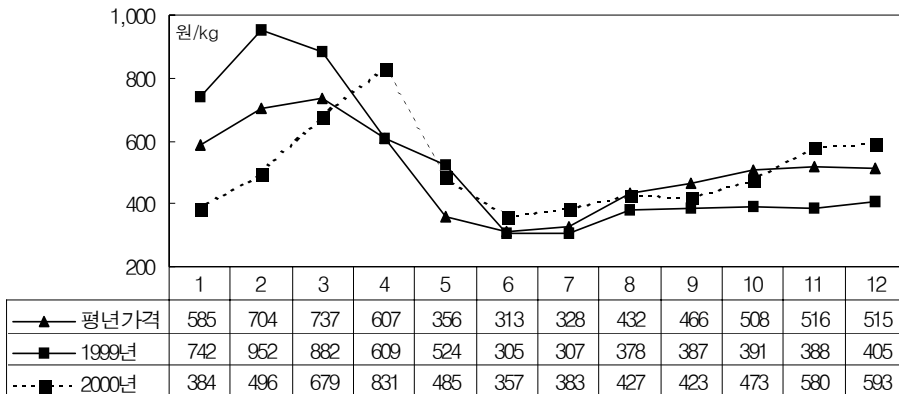
2.5. 양파

- 양파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549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4/4분기보다 39% 높은 수준이고, 평년 동기보다 7% 높은 수준임.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6% 적은 87만 8천톤이며, 저온저장

입고량도 작년보다 약 6% 적은 38~39만톤으로 조사됨.

- 저온저장 입고량 중 11월 20일까지의 출고량은 작년보다 약 17% 적은 15만 1천톤이고, 재고량은 작년과 비슷한 23만 5천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장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감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양파의 주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12월 이후 톤당 수출가격(FOB)은 각각 260달러, 16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미국산 양파의 민간수입원가는 kg당 860원, 도매원가는 93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산의 수입원가는 560원, 도매원가는 62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11월말 현재 재고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경기 침체로 수요도 위축되어, 12월 이후 내년 3월까지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 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수입 양파의 도매원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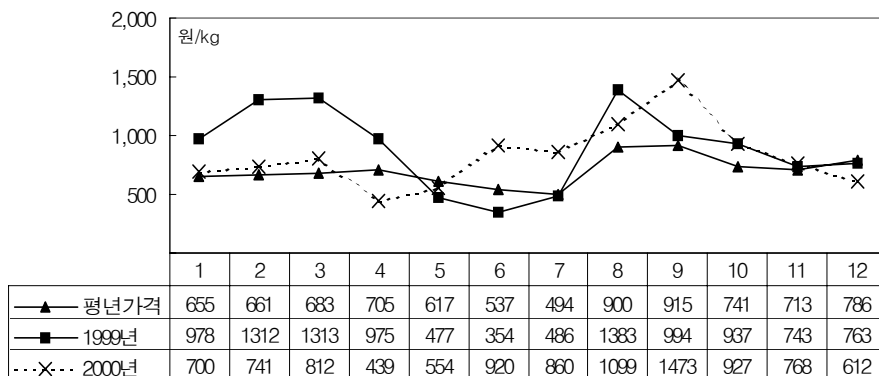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6. 대 파

- 대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769원(상품 기준)으로 작년동기보다는 6% 낮고, 평년동기보다는 3% 높은 수준임.
- 가격이 11월 초·중순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11월 하순에 상승한 것은, 상품성이 좋은 남부지방 대파가 반입되기 시작하였고, 김장 수요가 시작되었기 때문임.
- 11월 20일 현재 생육중인 대파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2월에 출하될 면적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 많고, 내년 1~2월에는 8%, 3월 이후에는 3% 많을 것으로 조사됨.
- 12월 이후 내년 초까지는 출하예정면적이 작년보다 많고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12월 이후 내년 초까지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1~12월 정식예정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경남은 작년과 비슷하고, 충북, 전북은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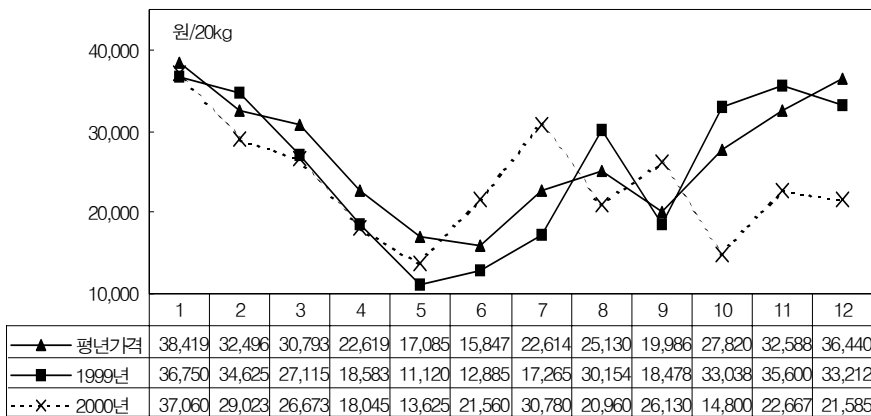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1~4월 정식의향면적은 올해 같은 시기보다 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북이 2~3%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약간씩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2.7. 오 이

- 취청 오이의 4/4분기 도매가격은 20kg당 19,684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4/4분기보다 42% 낮고, 평년 4/4분기보다는 42% 낮은 수준임. 백다다기 오이의 4/4분기 도매가격은 15kg당 16,619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4/4분기보다 35% 낮고, 평년 4/4분기보다도 37% 낮은 수준임.
- 이같이 가격이 예년보다 낮았던 것은 11월의 출하면적이 많았고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내년 1~2월의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오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취청)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유가 상승에 따라 12~3월 정식예정면적은 작년보다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지난달 조사치는 2%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가 8% 줄어들고, 충청과 호남은 각각 3% 증가하고, 강원과 영남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3. 과일류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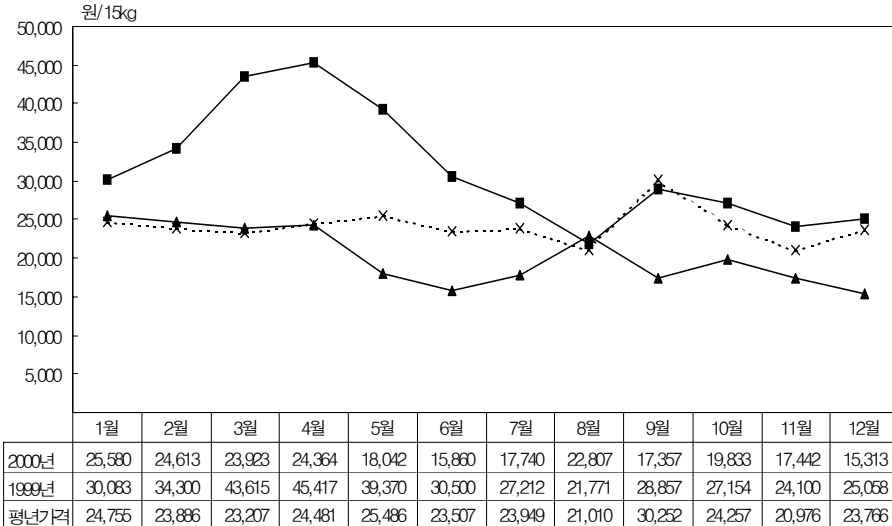
3.1. 사과

- 중생종(세계일, 조나골드, 양광 등)의 출하는 10월 중순에 거의 끝나고, 10월 4일부터 후지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였음. 후지 상품 15kg 당 도매가격은 출하초기인 10월 4일경 2만 6천원(중품 1만 8,500원)이었으나 15일경에 1만 9천원(중품 1만 4천원)수준으로 하락한 후, 11월 14일까지 1만 8천원(중품 1만 3,500원)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였음. 이는 평년보다는 15% 낮고, 작년보다는 25% 낮은 수준임. 사과 가격이 낮은 것은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포도, 배, 단감 등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임.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한 2만 9,063ha, 성목 면적은 8% 감소한 2만 1,259ha이었으며, 생산량은 성목면적은 8% 정도 감소하였으나 단수가 작년보다 3% 정도 늘어나, 금년 사과 생산량은 작년보다 6% 정도 줄어든 46만 3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사과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내년 사과면적은 금년보다 1% 정도 줄어든 28,690ha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품종별로는 주품종인 후지는 3% 정도 줄고, 조생종인 쓰가루는 14% 정도 줄어드는 반면, 중생종 홍로는 8% 정도 늘어나며, 기타 품종은 양광, 조나골드 등 중생종을 중심으로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음.

3) 이 자료는 이용선 부연구위원(yslee@krei.re.kr), 박준기 책임연구원(jkpark@krei.re.kr), 한석호 연구원(shoha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 중생종인 홍로와 양광 등 기타 품종은 신규조성 면적이 8~9%에 이르는 반면, 폐원면적은 1%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9~10월 생산량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조생종인 쓰가루는 금년에 28%가 감소한데다 내년에도 14%나 폐원되고, 신규조성 면적이 없어 앞으로 8월 출하량이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다.

사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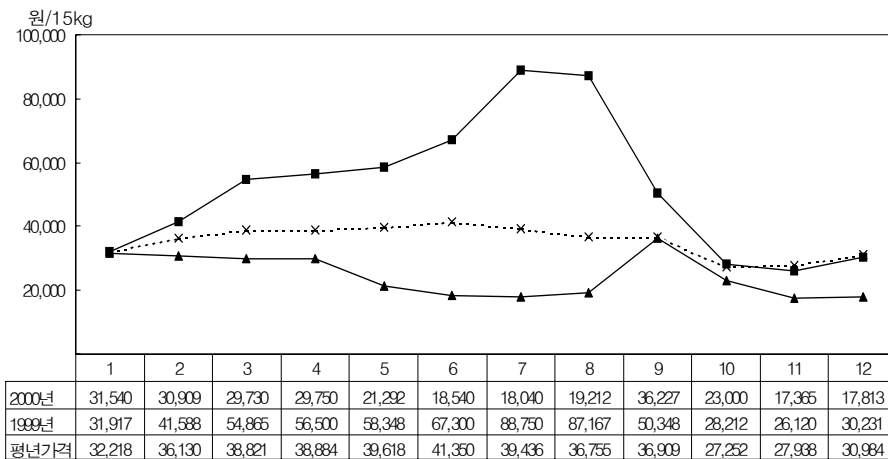
주 : 8~9월은 쓰가루, 10~익년 7월은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2. 배

- 중생종인 장십랑의 출하는 10월 16일경 거의 끝나고, 10월 20일경부터 신고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였음. 신고의 상품 15kg당 도매가격은 9월 중순부터 10월 20일경에는 2만 6천원(중품 1만 8천원)수준이었으나 24일경에는 2만원으로 하락하였고, 11월 14일경에는 1만 6천원(중품 1만 2천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평년보다는 37% 낮고, 작년보다는 32% 낮은 수준임. 이와 같이 배 가격이 낮은 것은,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9월 출하량이 적었던 데다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출하량이 10~11월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 금년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늘어난 2만 6,206ha이며, 성목면적은 14% 늘어난 1만 3,314ha이었음.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14% 정도 늘어났고, 낙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작년보다 6% 정도 늘어났으므로 추정되므로 금년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31만 2천톤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내년 배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배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1% 정도 늘어난 2만 6,5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은 각각 1%씩 늘어나고, 호남지역은 2% 정도 늘어나는 반면, 영남지역은 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음.
- 품종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신고와 황금배는 각각 2% 정도 늘어나는 반면, 장십랑과 만생종 만삼길은 7%, 8%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만삼길과 장십랑은 재배면적의 7~8% 정도가 폐원되고, 신규조성면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고와 황금배는 각각 2%, 3%씩 신규 조성되고 폐원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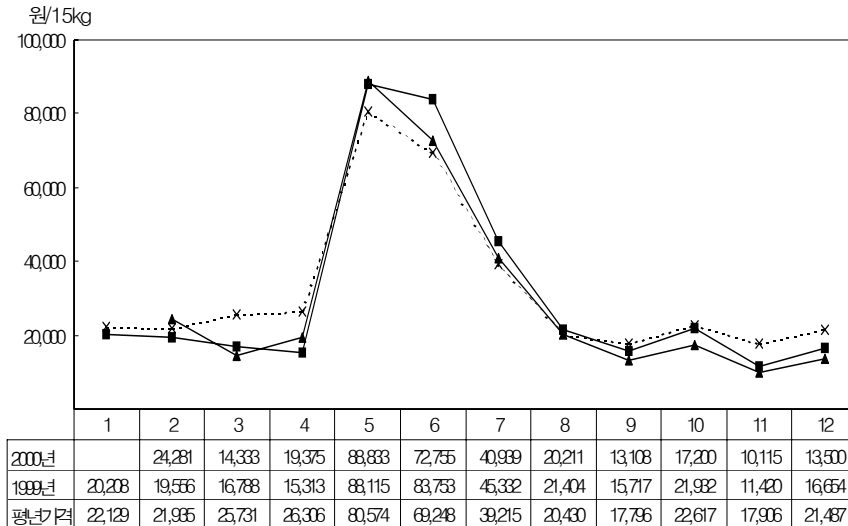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3. 포도

- 캠벨얼리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10월 20일경에 1만 8천원(중품 1만 4천원)에서 11월 1일경에는 1만 1,500원(중품 8,500원), 14일경에는 9,500원(중품 7천원)으로 하락하였음. 이는 평년보다 31% 낮고, 작년과는 비슷한 수준임. 거봉은 10월 말 이후에 출하가 거의 끝났으며, 10월 19일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만생종 세단(세레단)의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10월 19일경에는 1만 6천원(중품 1만 1,500원)이었으나, 11월 1일경에는 1만원(중품 7천원)으로 하락한 후 14일경까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금년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2만 9,200ha이고, 성목면적은 3% 정도 줄어든 2만 3,878ha이었음. 품종별로는 캠벨얼리 면적은 약 4%, 세단은 22%정도 감소하였음. 생산량은 성목면적은 3% 정도 줄어든 반면, 작황이 좋아 단수는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년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정도 늘어난 48만 3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내년 포도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포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정도 줄어든 2만 8,6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로는 금년보다 경기지역이 3%, 충청지역이 4%, 호남지역이 1% 정도 줄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캠벨얼리는 1% 정도 줄고, 만생종인 세단은 20%나 줄어드는 반면, 거봉은 2% 정도 늘고, MBA(머스캣베일리에이) 등 기타품종은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 캠벨얼리는 새로 심는 면적이 2%정도이나 폐원이 많아 면적이 감소하고, 거봉과 MBA등 기타품종은 3~5%정도 신규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세단은 내년에는 20%나 폐원되고 신규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 재배방법별로 보면, 금년보다 노지재배는 2%, 가온재배는 1% 정도 줄어드는 반면, 무가온 재배면적은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금년에는 하우스 포도 면적이 작년보다 8%, 특히 가온 재배는 10%나 늘어났으나, 금년 5~9월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고 기름값이 상승하여 가온재배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포도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 1~4월, 11~12월은 세단(세레단), 5~10월은 캠벨얼리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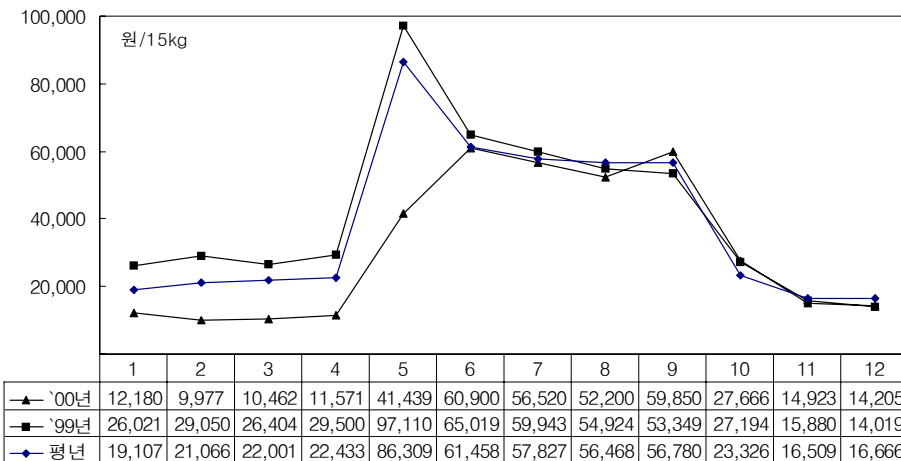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4. 감귤

- 4/4분기의 감귤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10월 27,700원, 11월 14,900원, 12월 14,200원 수준이었음. 4/4분기 감귤가격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평년에 비해서는 10월에 19% 정도 높았으나, 11~12월에는 10~15% 낮은 수준임.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음에도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 것은, 배, 포도, 단감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금년산 감귤의 대과비율이 높으며, 유가 상승, 대우 부도사태, 구조조정추진 등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임.

- 금년산 미국 네블오렌지에 대한 수입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11월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2월말까지 수입량은 3천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보다 적은 물량임.
- 농림부에 의하면 금년 노지감귤의 성목면적은 23,705ha로서 작년보다는 2% 늘고, 같은 해거리해인 재작년(1998년)에 비해 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금년산 노지감귤의 크기 및 분포에 대한 제주도의 조사결과, 금년산 감귤의 개당 무게는 재작년산보다 2.4% 큰 97.8g으로 나타남.
- 과일 크기별 분포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4-5번과 비율은 예년보다 낮고, 9-10과 등 대과비율은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금년산 감귤의 대과비율이 높은 것은 열매수가 예년보다 적었고 9, 10월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한편 금년산 감귤의 평균 당도는 9.4브릭스로 작년산보다는 높으나 재작년산보다는 낮으며, 평균 산도는 0.95로 작년, 재작년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감귤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주: 5~8월 가격은 하우스밀감, 10~익년 4월은 온주밀감임. 평년가격은 '95년산~'99년산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감귤 재배의향에 대한 농업관측센터의 조사결과, 재배면적은 2% 정도 줄 것으로 나타났음. 조생종만 2% 정도 줄고, 만감류는 한라봉을 중심으로 11% 정도 늘 것으로 조사됨. 한편 하우스감귤 가온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4% 정도 줄 것으로 조사됨. 12월 중순까지 가온이 시작되는 조기가온면적은 12% 정도 줄고, 보통가온면적도 8% 정도 주는 반면, 후기가온면적은 11%나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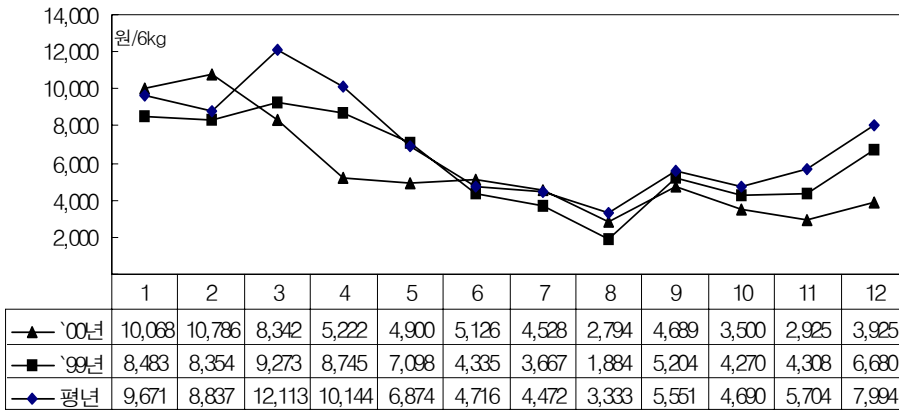
3.5 수박

- 2000년 수박의 재배면적은 시설면적이 작년(21,299ha)보다 2% 줄어든 20,952ha 이고, 노지면적은 작년(13,200ha)보다 28%정도 줄어든 9499ha로 총면적은 작년보다 12% 정도 줄어듬.
- 4/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6kg 상자당 상품기준으로 10월 3,500원, 11월 2,925원, 12월 3,925원 이었으며 4/4분기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낮았음. 10월과 11월의 수박가격 수준이 낮았던 것은 수박 출하량이 작년동기보다 5%, 42%씩 각각 늘었기 때문이며, 단감, 사과, 배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12월 수박 가격은 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의 출하량 증가와 경기위축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가격은 하락하여 예년보다 낮았음.
- 2001년 1/4분기 하우스 수박 정식예정면적은 전년대비 2%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재배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은 2000년 봄에 재배면적증가로 수박가격이 낮았기 때문임. 반면 2001년 3~4월 정식의향면적은 2000년보다 1~3%정도 많을 것으로 나타났음.
- 타원형계 하우스수박의 재배면적 비중은 전체 하우스수박재배 면적 중 1999년에 48%, 2000년에 63%를 차지하였고, 2001년 재배의향 면적조사결과 7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이처럼 원형계에서 타원형계로 품종이 변화하는 이유는 타원형계 수박이 원형계 수박보다 당도가 높아 가격이 높기 때문인데, 2000년 8월 산지가격조사결과 타원형계 수박 가격이 원형계 수박가격보다 2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 하우스 수박가격은 정식의향면적이 줄어 2000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수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95~'99년의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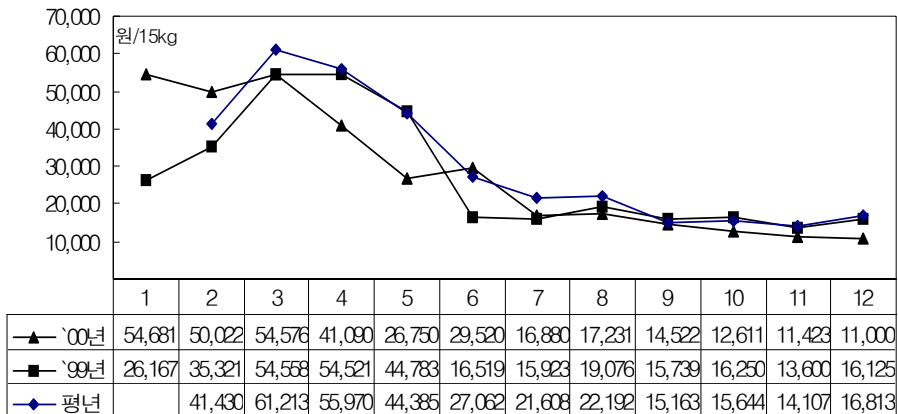
3.6 참외

- 금년 참외 재배면적은 작년(10,859ha)보다 6% 정도 줄어든 10,203ha 이었음.
- 4/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10월 12,611원, 11월 11,423원, 12월 11,00원으로 4/4분기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낮았음. 10월 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공급량이 작년보다 26% 줄었으나, 품질이 좋지않고,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11월, 12월 참외가격이 예년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보다

공급량이 많았고, 단감, 사과, 배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12월 수박 가격은 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의 출하량 증가와 경기위축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가격은 하락하여 예년보다 낮았음.

- 2001년 참외 정식예정면적은 2000년 11~12월에는 정식의향면적이 작년보다 4~5%늘고, 2001년 1~3월에는 2~5%정도 줄 것으로 나타남. 영남지역은 금년 11~12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늘고, 내년 1월이후 정식은 금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호남지역은 내년 1월 정식면적이 금년보다 5% 늘어나는 반면, 내년 3월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7%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충청지역은 내년 1월 정식은 금년보다 5% 늘어나고 내년 2~3월 정식면적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정식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은 2000년 3~5월사이 참외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01년 참외 가격은 정식의향이 다소 줄어 2000년보다 다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참외 도매가격 동향 (상품, 15k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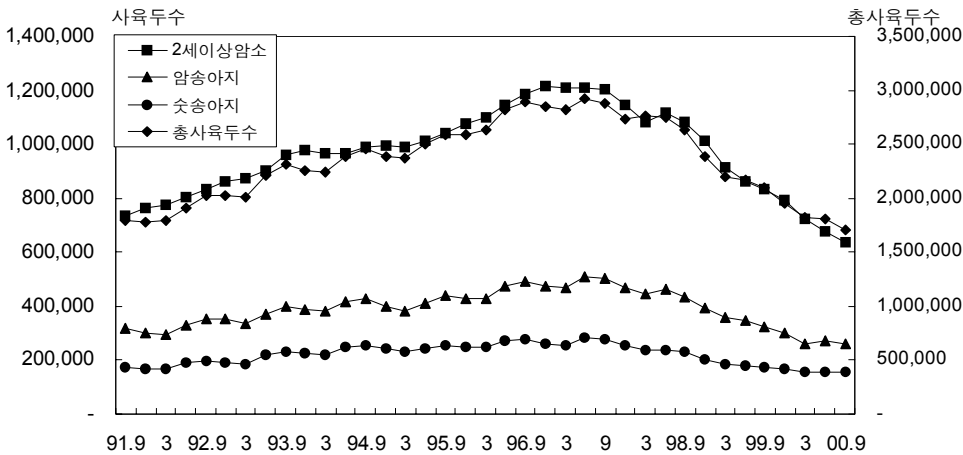
주 : 평년가격은 '95~'99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 축산4)

4.1. 한육우

- 2000년 9월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171만두로 2000년 6월 180만두보다 9만두가 감소하였음. 1999년 9월보다는 18%가 감소한 것이고 2000년 6월에 비해서는 4.9% 감소한 것임.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두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들의 사육마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육기반이 안정된 100두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농가들의 사육마리수는 소폭 증가하였음.
- 2000년 9월 가임암소두수는 2000년 6월 78만 5천두보다 4만7천두가 줄어들어 73만8천두가 되었음. 1999년 9월보다는 20.6%가 감소한 것이고 2000년 6월보다는 6% 감소한 것임.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신승열 부연구위원(syshin@krei.re.kr), 최윤상 초청연구원(yschoi@krei.re.kr), 전상근 연구원(sangjun@krei.re.kr), 성동현 연구원(dhsu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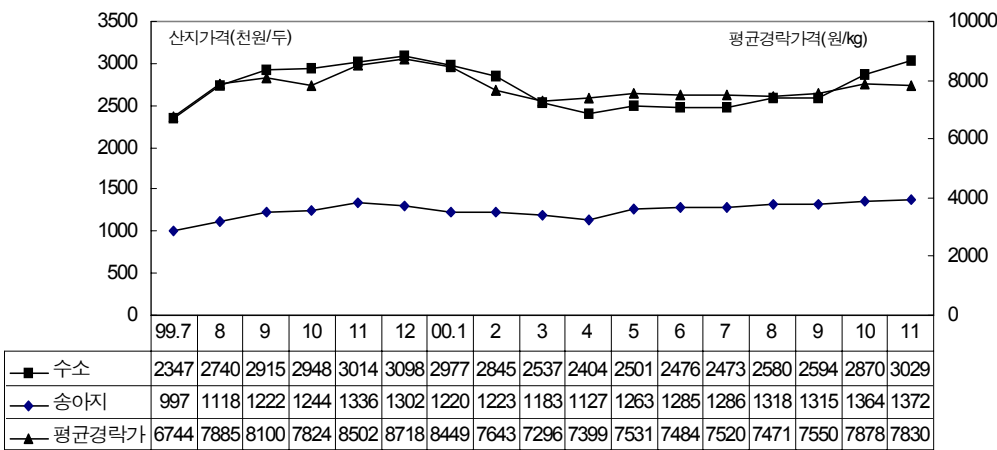
- 한육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번식기반의 기초가 되는 가임 암소두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임. 가임암소두수가 감소하는 것은 수입개방에 따른 불안감으로 암소도축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사육심리가 계속 위축되어 있고, 산지값이 좋을 때 처분하려는 단기비육에 대한 유인이 컸기 때문임.
-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사육가구수도 같이 감소하였음. 2000년 9월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30만5천호로 1999년 9월에 비해서는 18% 감소, 2000년 6월에 비해서는 6.4% 감소하였음. 사육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두미만 사육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사육기반이 안정된 100두이상 대규모농가에서는 2000년 6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1~9월의 인공수정실적은 45만3천두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12%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0년 5월 이후 인공수정실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2001년 상반기부터는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도축두수의 감소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였음.
 - 2000년 1~10월의 총도축두수는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84만두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8.9% 감소하였음. 한육우 암소 도축두수는 동기간에 39만6천두가 도축되어 작년 동기간에 비해 10.4% 감소하였음.
 - 2000년 1~11월까지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약 22만톤(검역기준)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23%나 증가하였음.

- 2000년 1~12월까지의 국내산 쇠고기생산량은 18만3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량은 22만5천톤(정육환산)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 쇠고기자급률은 41%가 될 것으로 추정됨.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1999년 7월 이후 암소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사육기반 약화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산지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0년 1월에는 500kg 산지 수소가격이 290만원대를 상회하였음. 이후 3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산지가격은 240만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다가 추석 성수기로 인해서 한우수소 산지가격은 10월에 287만원대까지 상승하였고 연말소비를 앞둔 11월에는 303만원대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산지가격은 소폭 하락하여 12월 19일 현재 288만원을 나타냄.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가임암소에 대한 도축이 증가하면서 국내 사육기반은 많이 약화되었음. 그에 따라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3월부터 한우 암소가격이 수소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고, 11월까지 상승하던 한우 암소 산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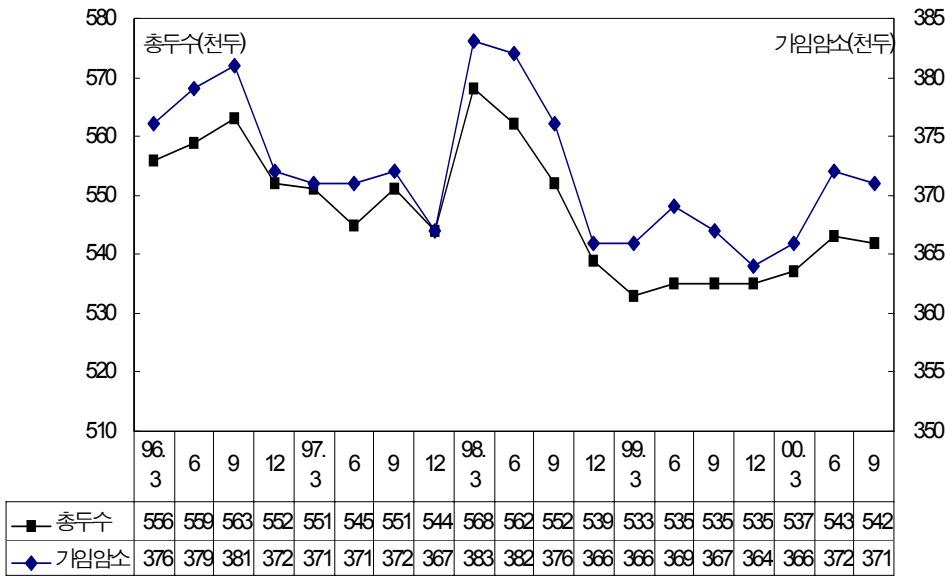
은 12월 들어 소폭 하락하여 12월 19일 현재 297만원을 나타냄.

- 큰수소값(천원/500kg) : ('00.3) 2,537→('00.6) 2,501→('00.9) 2,594→
('00.10) 2,870→('00.11) 3,029→('00.12.19) 2,888
- 큰암소값(천원/500kg) : ('00.3) 2,698→('00.6) 2,792→('00.9) 2,907→
('00.10) 2,984→('00.11) 3,021→('00.12.19) 2,974
- 수송아지가격(천원/두) : ('00.3) 1,183→('00.6) 1,285→('00.9) 1,315→
('00.10) 1,364→('00.11) 1,372→('00.12.19) 1,338
- 쇠고기평균경락가격(원/kg) : ('00.3) 7,296→('00.6) 7,484→('00.9) 7,550 →
('00.10) 7,878→('00.11) 7,830→('00.12.19) 7,430

4.2. 젓 소

- 젓소 총 사육두수는 1998년 3월 56만 8천두였으나 이후 감소하다 1999년에는 53만 5천두선을 유지. 2000년 3월 53만 7천두, 6월에는 54만 3천두로 증가하였음. 2000년 9월에는 54만 2천두로 전분기보다 1천두($\Delta 0.2\%$)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보다는 7천두(1.3%) 증가함.
- 2000년 상반기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젓소의 이동 제한과 도태우의 가격이 낮아 저능력우 도태가 감소하여 6월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하반기에는 질병 및 번식장애에 의한 도태증가로 12월 사육두수는 9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젓소 가임암소 두수는 1998년 3월 38만 3천두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 12월 36만 4천두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0년 3월 36만 6천두로 증가, 6월에는 37만 2천두, 9월 현재 37만 1천두로 전분기보다 1천두($\Delta 0.3\%$) 감소, 작년 동기보다는 4천두(1.1%)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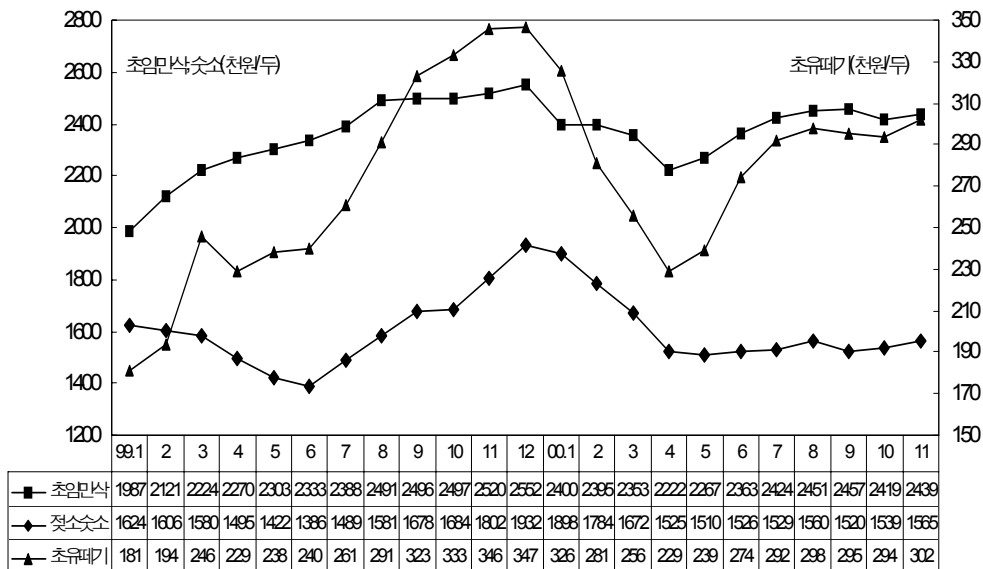
젖소 사육두수 동향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199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던 젖소 사육가구수는 1999년 9월 1만4천9백호, 2000년 6월 1만3천8백호, 9월에는 1만3천6백호로 3개월 전보다 2백호(△1.4%) 감소, 전년동기보다 1천 3백호(△8.7%)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0년 9월 연령별 두수변화를 보면, 2세이상 및 경산우 두수가 각각 31만 2천두, 30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0.3%씩 감소. 착유우 두수는 25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2.3% 감소. 1세미만 젖소는 11만 1천두로 3개월전 사육두수를 유지하였으나, 작년 동기 보다는 2.8% 증가함.

젓소 산지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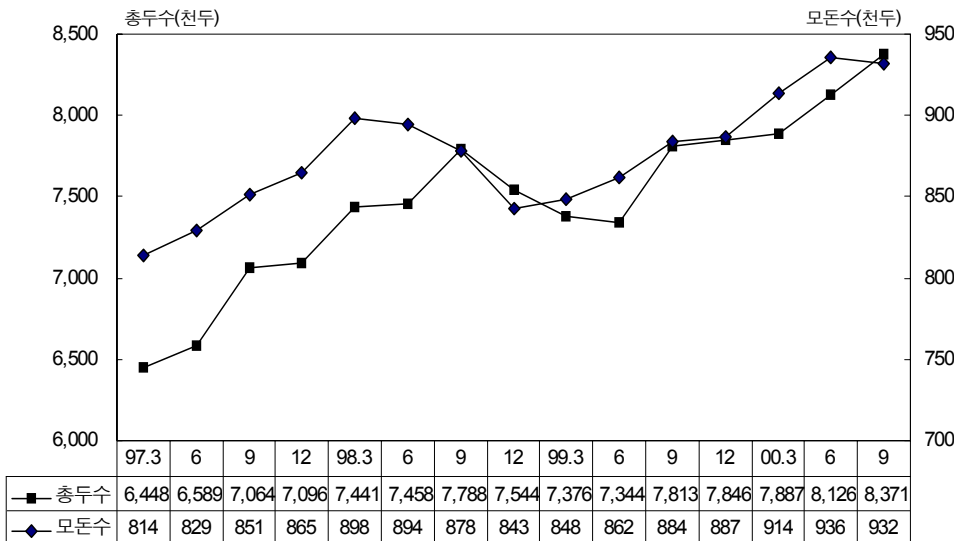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IMF 관리체제하의 1998년 7월 6만 4천원까지 하락한 초유떼기 가격은, 1999년 12월 34만 7천원까지 상승.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 6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1월에 30만 2천원에서 거래. 12월 20일에는 조금 하락한 29만 1천원을 기록.
- 초임만삭우: 1998년 7월 131만 9천원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구제역 발생 후 사육 불안으로 2000년 4월 222만 2천원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243만 9천원을 기록. 12월 들어서는 조금 상승하여 20일 현재 244만 9천원으로 거래.
- 젓소숫소: 1998년 7월에 최저수준인 109만 2천원을 기록.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1999년 12월 193만 2천원으로 상승. 이후 2000년 4월부터 150만원대에서 보합세 유지. 12월 20일 현재 153만 4천원 기록.

4.3. 돼 지

- 돼지 총 사육두수는 1990년대 들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9월 778만 8천두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 6월 734만 4천두까지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99년 12월 786만 4천두, 2000년 3월 788만 7천두, 6월 812만 6천두, 9월 837만 1천두로 3개월 전보다 24만 5천두(3.0%), 전년동기보다 55만 8천두(7.1%) 증가함.
- 모돈수는 1998년 6월 89만 4천두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8년 12월 84만 3천두까지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 6월 93만 6천두를 기록. 9월에는 93만 2천두로 3개월 전보다 4천두(△0.4%) 감소, 전년 동기보다 4만 8천두(5.4%) 증가함.
- 1999년 12월 이후 계속 감소하던 사육호수는 금년 6월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9월에는 다시 감소하여 2만3천5백호로 3개월 전보다 1천 1백호(△4.5%), 작년 동기보다 8백호(△3.3%) 감소.

돼지 사육마리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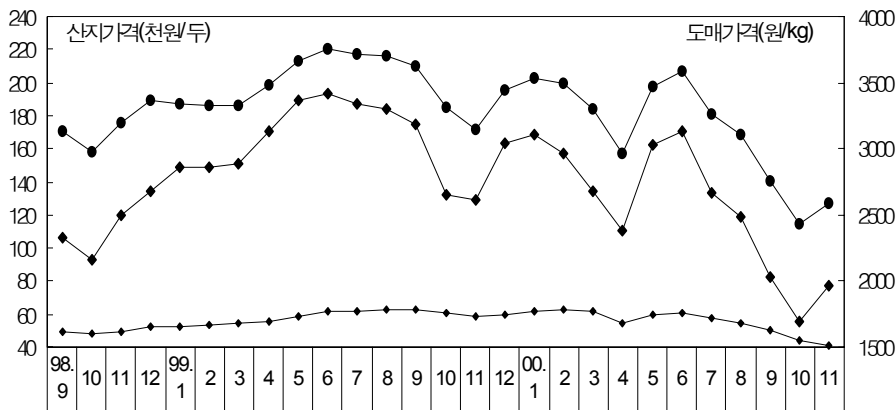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돼지 산지가격변동

- 성돈(100kg) : '97년 17만 1천원→'98년 17만 9천원→'99년 19만 9천원으로 상승 추세. 금년 들어 강세로 출발하였던 산지가격이 구제역의 영향으로 4월에는 일시적 하락 현상을 보였으나, 정부수매에 의한 도매시장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5월과 6월에는 산지가격이 상승하였음.
-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과잉 공급으로 7월 중순부터 산지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11월 초순 10만 5천원까지 폭락함. 이후 육가공업체 비육돈 비축자금 지원에 의한 민간수매활동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인하로 소비량이 증가하여, 돼지 산지가격은 반등하여 12월 20일 현재 15만 4천원까지 상승.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 성돈	171	158	176	189	187	186	186	199	213	220	217	216	210	185	172	195	203	200	184	157	198	207	181	168	141	115	127
▲ 자돈	49	48	49	52	52	53	54	56	59	62	62	63	63	61	59	60	62	63	62	55	60	61	58	55	50	44	41
◆ 평균경락가	232	216	249	268	285	286	286	313	336	342	334	329	318	265	261	304	311	296	268	237	302	313	266	248	203	168	196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 자돈 : '97년 5만 3천원→'98년 5만 4백원→'99년 5만8천7백원으로 상승 추세. 금년 들어서도 1월과 2월에 6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성돈 산지가격의 하락 이후 자돈 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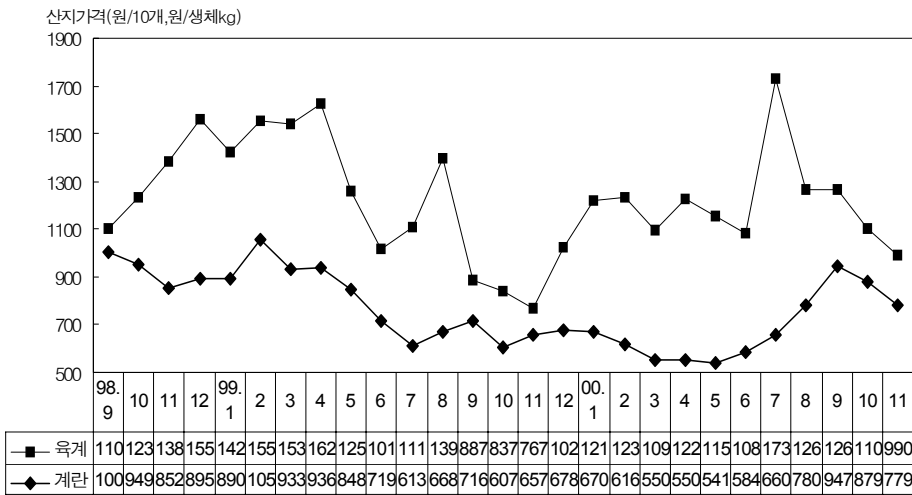
11월에는 4만 1천원까지 하락함. 그러나, 성돈가격의 반등세로 자돈 가격도 상승하여 12월 20일 현재 4만 6천원으로 거래.

4.4. 닭

- 2000년 9월 닭 총 사육수수는 9,580만수로 6월의 11,877만수보다 19.3%, 1999년 9월의 10,057만수보다 4.7% 감소함.
- 산란계의 경우 장기간의 계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사육의욕 저하로 신규입식이 줄어 6개월령이상 마리수의 감소로 사육수수가 줄어들었고, 육계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이후 병아리입추의 감소로 사육수수가 감소함.
 - 2000년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878만수로 6월과 1999년 9월에 비해서 4.7% 감소함. 2000년 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마리수는 3,574만수로 1999년 9월에 비해서 1.9% 감소하였음. 2000년 9월 사육가구는 2,702호로 6월에 비해 6.9% 감소하였고, 작년 9월에 비해서는 9.3% 감소하였음.
 - 2000년 9월 육계 사육수수는 4,031만수로 6월에 비해 32.7% 감소하고, 1999년 9월에 비해서는 5% 감소하였음. 2000년 9월 육계 사육호수는 2,188호로 6월보다는 23%, 1999년 9월보다는 9% 감소하였음.
- 계란의 산지가격 변동
 - 계란의 산지가격은 2000년 5월까지 1999년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541원까지 내려갔으나, 1999년 12월 산란실용계 입추 중단에 따라 6월부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9월에는 940원대까지 회복되었음.
 - 10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가격은 11월에 70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며 12월초까지 그 하락세가 지속되었음. 그 이후 점차 상승하여 12월 중순에는 800원대에 이르렀음.
- 육계의 산지가격 변동

- 전국적인 질병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여름 성수기 수요증가로 2000년 7월 산지가격은 1,732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추석이후 소비감소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8~10월까지는 1,000~1,200원대에서 거래되었으며, 11월에는 1999년 11월에 비해 높은 900~1,100원대에서 유지되었음.
- 11월 중순까지 990~1,060원대를 유지하던 산지가격은 하순부터 서서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11월말에는 920원대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12월 상순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주 : 계란 산지가격은 2000년 이전은 대란기준이며, 그 이후는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2000년 1~9월까지의 산란용 종계병아리 입추수수수는 37만2천수로 1999년 같은 기간의 48만7천수에 비해 23.6% 감소하였음. 2000년 10월 종계병아리 입추수수수는 6만7천수로 1999년 10월에 비해 71% 증가하였고, 10월에 비해 58% 감소한 11월의 종계병아리 입추수수수는 2만8천수로 1999년 11월에 비해 40% 증가하였음.
- 2000년 1~3월에는 육용 종계병아리 입추수수수가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다가 4~7월에는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이후 8월부터 종계병아리 입식은 다시 1999년에 비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과 11월에 각각 1999년 10월과 11월에 비해 31.4%와 19.5% 증가하였음.

○ 닭고기 수입

- 2000년 1~11월까지의 닭고기 수입량은 총 6만여 톤으로 1999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5,579톤이 수입되어 1999년 11월에 비해 수입량이 40% 증가하였음.
- 중국산 닭고기 수입은 지난 5월 금수조치 해제이후 8월초 처음으로 48톤이 수입된 이래 급격히 증가하여, 11월에만 749톤이 수입되어 11월 닭고기 총수입량의 13%를 차지하였으며, 11월까지의 수입량 누계는 1,682톤으로 2000년 11월까지의 닭고기 총수입량의 3%를 차지하고 있음.

VI. 특별주제

-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도입방향
-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농가소득 안정 정책의 도입 방향¹⁾

1. 소득 안정 정책의 필요성

- 금년도에는 사과, 배, 토마토, 수박, 참외 등 대다수 과채류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가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됨. 전반적인 생산과잉도 문제였지만 미국산 오렌지 등 외국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겹쳐 가격하락을 부채질하였음.
- 농산물 가격 등락, 생산량의 변동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불안정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으나 농업의 상업화, 개방화에 따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1.1. 농업소득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인

- WTO 체제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가격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 도입하기는 어렵게 됨.
- 영농형태가 다각경영에서 전문화로 전환됨에 따라 특정 품목의 소득 감소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 더구나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 화훼, 축산업에서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농업소득률이 감소하고 있음. 특히 축산과 시설농업에서 농업소득률이 낮으며, 점점 늘어나는 임차지 비율도 농업소득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990년의 농업소득률은 69.0%이었으나 1999년에는 56.7%로 낮아졌

주) 이 자료는 농촌발전연구부의 오내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자우편(naewonoh@krei.re.kr)으로 연락

음. 이는 외부 요인으로 조수입이 30% 감소할 경우(비용 변동은 없다고 가정), '90년에는 농업소득을 43.5% 감소시켰으나, '99년에는 52.9%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외부 차입금에 의한 농업투자 확대에 의해 농업소득의 일시적 감소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도산까지 유발할 수 있음.
- 개방 하에서는 단기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상방경직적이어서 소득 변동을 심화시키게 됨. 예를 들어 전국적인 기상악화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과거에는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량 감소를 보전하였지만, 개방 하에서는 가격 상승 대신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1.2.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의 평가

- '80년대 말 이후 구조농정에서는 농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생산·유통 기반 확충과 전업농·후계자 육성이 적극 추진된 반면 농가소득 자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었음.
-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일부 품목에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소득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함.
 - 추곡수매제는 WTO 협정 이행에 따른 수매량 감축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에 대해 계약재배와 수매제(최저가격 예시 포함)를 실시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어 가격 안정의 효과가 적으며, 최저보상가격도 경영비 수준으로 소득안정에 미흡함.
 - 유통명령제가 금년 6월 출발되어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참다래, 겨울배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양파, 마늘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아직 효과를 평가할 수 없음.

- 자연재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농업소득과 경영의 안정에는 부족함.
- 재해 보험은 이제 시작단계임. 축협이 가축공제사업은 '97년부터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 본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나 아직 가입두수가 적으며, 작물보험은 사과와 배에 대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준비중임.
- 자조금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홍보와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하며 수급 조절 기능은 아직 못하고 있음.

1.3. 소득안정 정책의 필요성

- 가격변동과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소득의 불안정은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상업화되고 전문화된 농가, 차입금이 많은 대농의 소득불안정이 심함. 그 결과 개별 농가의 경영불안 뿐만 아니라 전업농 육성을 통한 구조개선도 제약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전업농등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 유지, 농민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 내지 해소하는 수단은 크게 나누어 공적·제도적 접근과 농가의 개별적 접근, 생산 이전의 단계와 생산 이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농가의 개별적 대책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국적인 가뭄, 태풍과 같은 대형 재해의 경우에는 효과가 적음.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대책도 중요하나, 여러 불확정 요인이 작용한 이후의 가격과 수량변동에 따른 소득불안정을 감소시키는 것이 경영의 지속과 농업발전에 긴요함.
- 소득불안정에 대한 사후적인 공적 대책으로는 전통적인 재해지원 및 재해보험, 수매·출하조절·최저가격보장 등 가격안정정책을 들 수 있음. 그러나, WTO에서 가격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외국에서는 소득안정을 직접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마련하되, 새로운 형태인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까지 포함하여 외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험 감소 대책의 유형

주체 대책 대상	공적·제도적 대책	개별적 대책
사전 대책 (생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예보 · 기술개발 및 보급 ·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외소득 등 소득원 다양화 · 영농다각화(품목과 품종) · 계약재배, 수직적 계열화 · 선물거래
사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지원 및 재해보험 · 최저가격제, 출하조절 등 · 소득보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출하조절 · 보험 가입 · 금융대책(유동자산 확보, 투자조절)

2. 외국의 소득안정제도(safety net)

2.1. 외국의 소득안정제도의 동향과 특징

- 소득안정제가 농업정책에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케

나다에서 '80년대의 농업정책이 재정지출 급증으로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한 '90년 전후임.

- UR 타결 당시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소득안전망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확대되자 미국에서는 1999년 세이프티 넷트 정비를 농정의 제1과제로 설정하였고, 일본도 쌀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 경영안정대책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외국의 소득안정정책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가격정책의 축소를 통한 시장·무역 왜곡의 교정이라는 농정개혁을 표방하며 시장왜곡이 덜한 소득정책의 도입이 시도되었음. 그 예로 캐나다의 순소득안정계정(NISA), 미국의 품목별 수입보험제도(CRC 등)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가격정책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며, 더구나 국제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 국면에서 개별 품목의 가격수준과 연계된 지원정책이 부활하여 소위 '개혁의 후퇴'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은 개별 품목에 대한 긴급지원정책(생산자유통직불제 인상, SIAP)을 시행하였으며, 캐나다도 품목별 보조인 농업소득긴급지원(AIDA)을 도입하였음. 일본은 1998년에 도작경영안정제도를 실시한 이후 콩, 보리 등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하락에 대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함.
- 이와 같은 사실들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WTO 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2.2. 일본

- 대폭적인 가격 하락 및 변동이 전업농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쌀, 맥류, 대두, 유채, 감미작물, 우유·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쌀 가격이 과거 3개년 평균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하락분의 80%를 지원하는 「도작경영안정대책」을 '98년부터 시행함. 대상은 쌀수급안정대책에 가입한 생산자가 출하한 자주유통미임.
 - 재원인 도작경영안정기금은 생산자 각출금(기준가격의 2%)과 정부 지원금(6%)으로 마련함.
- 「새로운 맥류정책대강」(1999년)에 근거하여 민간유통으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자의 경영안정대책으로서 「맥류경영안정자금제도」를 2000년부터 실시함.
 - 초년도에는 1999년산 정부매입가격과 2000년도 입찰기준이 되는 가격의 차액을 보전수준으로 함.
- 또한, 대두의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작경영안정대책과 같이 품종별로 과거 3년간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할을 보전하는 「대두작경영안정대책」을 2000년부터 실시함. 단, 생산자 각출금은 보전기준가격의 3%, 정부 출연금은 9%로 하고 있음.

2.3. 미국

- 1996농업법은 농업지원을 과거의 <재해보험 + 부족불제도>에서 <재해보험 + 생산자유통지불제>로 전환하였음. 이는 농업보조금을 가격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정을 개혁한다는 취지였음.
- 한편, 가격변동에 대비한 작물별 수입보험제도를 1996년부터 도입하

였음. 이는 예상조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증하는 보험으로서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고, 보험료의 일부와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작물수입보험(CRC: Crop Revenue Coverage), 수입보장(RA: Revenue Assurance), 소득보장(IP: Income Protection)의 3가지가 있으며, 지역별·품목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 그러나, 1998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와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각종 농가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98, '99년에 작물보험료를 인하하고, 2000농업위험대책법에서 작물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82억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99, '00년에 직접지불액을 각각 50%, 100% 인상하여 지불하였으며, 2000-2002년간 새로운 소득보조정책인 보완적소득지원프로그램(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함.

○ '01년 예산에서 발표된 SIAP은 품목별로 예상조수입이 과거 5년간 평균수입의 92% 이하일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밀·쌀·면화·유종실·옥수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000년의 예산은 6억불이며,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25억불을 계상하고 있음. 이 지원 프로그램은 품목특정적이며 현재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국이 주장해 온 WTO의 녹색정책(green box)이 아님.

○ 또한 일종의 가격지지정책인 비상환용자제(loan rate)와 용자차액지불(LDP)이 유지되고 있어 시장가격과 직접 연계된 정책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2.4. 캐나다

○ 캐나다의 소득안정정책은 1991년 이후 품목별 작물보험과 총수입보험

(GRIP), 소득안정계정(NISA)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생산과 시장왜곡이 가장 적은 WTO의 모범사례였음.

- 그러나,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급감하자 새로운 지원책인 농업소득긴급지원(AIDA, Agricultural Income Disaster Assistance)을 실시하였고, 유통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가격보장효과를 노린 공동계산지원프로그램(PPP: Price Pooling Program)을 도입함.
- AIDA는 농업수입(조수입-현금경영비)이 과거 3개년 평균의 70% 이하로 떨어질 때 부족분을 보조하는 정책으로서, 장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NISA가 단기적이고 대폭적인 소득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한 것임. 농가의 부담금은 없으며 연방정부가 소요 재원의 60%, 주정부가 40%를 부담하기로 함.
- 한편, PPP는 생산자단체(또는 유통·가공업자)가 연간에 걸쳐 농산물(가공품)을 협업판매하기로 한 경우 적용하며, 판매한 연간 평균가격이 사전에 결정된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분을 보조함.

3.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3.1. 소득안정 정책의 기본 방향

- 소득안정을 위한 사후적 정책은 가격안정정책, 재해보험, 소득안정제(농가단위 수입보험, 품목별 수입보험, 소득안정계정)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농가별 총농업소득(또는 농가소득)의 안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구상될 수 있지만, 농가별 농업소득(조수입)이나 소득손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장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중단기적으로 이

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 단, 캐나다의 NISA와 같은 소득안정계정 방식은 엄격한 소득과약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방식은 최근 캐나다에서 보듯이 소득 감소가 2-3년 이상 계속 발생할 경우 소득안정화 기능이 약함.

소득안정을 위한 사후적 정책의 유형과 특징

		장 점	문제점
가격안정정책		전체 농가가 수혜 낮은 행정비용	WTO 규정(생산왜곡) 개방화로 고수준 안정 곤란
재해보험		경영과탄 방지	비교적 높은 행정비용
수입 보험	농가 단위	가격·수량 변동 동시 대처 WTO 협정 합치	높은 행정비용/도덕적 해이
	품목별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책효과 제고	WTO 협정 불합치 가능성
소득안정계정		가격·수량 변동 동시 대처 WTO 협정 합치 낮은 행정비용/도덕적 해이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해 소득안 정효과 적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합을 구상하여 실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총농업소득 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가격정책과 재해정책의 도입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가격정책은 WTO의 제약이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가격안정정책은 안정화뿐만 아니라 가격지지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경제작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최소화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기

능을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해 보험은 생산구조가 다수의 영세농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 비용 등의 사유로 시행이 곤란함.
- 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으면 도덕적 해이, 피해액 산출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보장수준이 낮으면 소득안정효과가 낮아짐

3.2. 주요 품목별 중단기 소득안정정책 방향

<쌀>

- 쌀은 우리 나라의 기본 식량작물로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며, 기반정비와 재배기술의 표준화로 단수도 안정되어 있음.
- 그러나, 2004년 이후의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홍수·태풍으로 인한 침수, 도복 피해가 자주 발생함.
- 생산 구조를 보면 다수의 영세농 적체한 가운데 소수의 전업적 농가가 성장 중임.
- 따라서, 중장기적 가격 변동(하락) 추세에 대응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한편 현재의 재해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작물보험의 도입도 가능함.

<채소류>

- 채소류는 재배면적 변동이 심하고 저장성이 약해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품목임. 더구나,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수입개방의 영향도 심하여질 것으로 예상됨.
- 생산구조는 품목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재배 농가의 전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품목은 주산지가 뚜렷이 형성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생산자 단체의 형성이나 역할은 매우 저조함.

- 농가의 정책수요 면에서나 행정 집행가능성에서 판단할 때, 채소류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과 같은 개별 농가단위의 대책은 시행이 어렵고 가격안정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음.
 - 단, 태풍·우박·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에 대한 보험은 시급히 도입하여야 함.
- 가격안정을 위한 예/관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변동에 대한 대책으로 출하조절, 최저가격보장, 유통명령제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함. 단, 보장가격이 고착화되는 것은 피함으로써 장기 가격변동에 대해 농민들이 생산 전환, 기술개발을 통해 적응토록 하여야 함.
- 주산지가 형성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통명령제와 자조금제를 결합한 운영방안을 모색함.

<과수>

- 과수는 채소류에 비해 가격의 불안정성은 작으나 작목전환이 어려워 단기적인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고, 수입개방(중국 WTO 가입, 한·칠레 FTA 체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장기적으로 가격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생산량 면에서는 태풍, 우박, 냉해 등 자연재해가 국지적으로 빈발함.
- 전업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며 개별 농가의 수확량과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재해보험이나 소득보험도 성립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작물보험과 함께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격안정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보험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축산>

- 축산은 해외요인 등에 의한 가격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축사,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고, 조수입 대비 입식비와 사료비의 비중이 커 경영불안정 요소가 다양하고 큼.
- 낙농, 양돈, 양계, 비육우는 전문화 정도가 강하며, 농가의 조수입(소득)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여 소득안정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단, 타 농업분야와의 형평상 정부의 지원보다는 생산자단체를 통한 자조적 노력을 중심으로 하여야 함.
 - 즉,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통한 수매, 비축, 가공 사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수직적 계열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영불안정을 해소 하고, 재해대책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 보험업체의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의 품목별 소득안정정책의 방향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주요 품목별 소득안정정책 방향

품 목	기본 방향	비고
쌀 등 주요 식량작물	○ 직접지불제도(가격 하락과 연계) ○ 재해 지원	식량안보 차원에서 생산유 지 필요
채소류	○ 가격안정제 ○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	가격지지적 정책 유보
과실류	○ 가격안정제+재해보험 ○ 조수입보험 용이	
축산	○ 민간의 위험 감축 장치 유도 - 계열화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 민간 재해보험(가축공제 활성화)	환경 문제 충분히 고려

농산물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¹⁾

1. 농산물전자상거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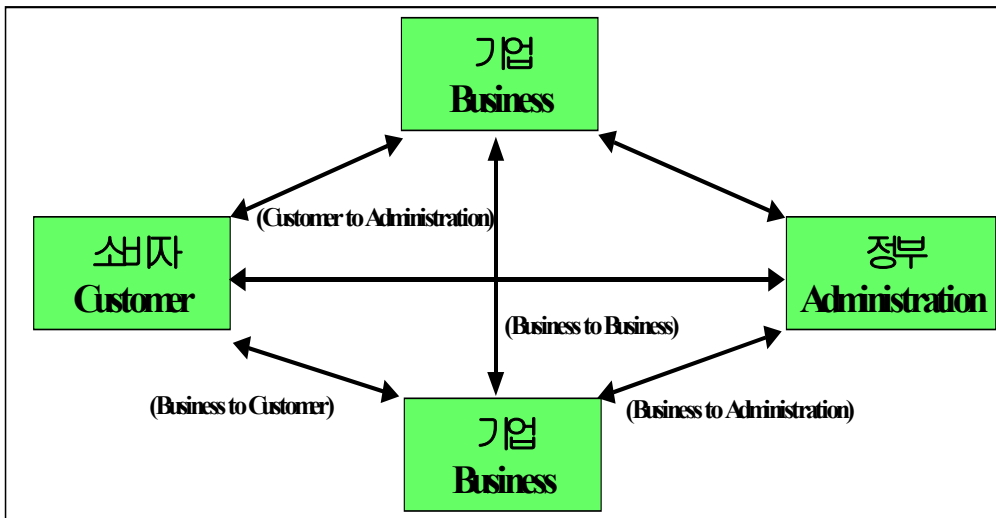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상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음. 즉 전자상거래란 온라인쇼핑몰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財貨)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정보기술과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간에, 정부와 다른 조직간을 연결시켜 정보와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고 결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란 광의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음.
- 농산물전자상거래는 사업영역과 취급품목, 그리고 경영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음. 여기서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농산물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즉 ‘농산물전자상거래란 누가 사업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농산물가공품이나 식품을 포함한 농산물과 관련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교환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

2. 전자상거래의 유형

- 상거래의 주체에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참여주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형태는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즉 기업간의 구매조달 포털과 같은 기업간거래(B2B), 쇼핑몰과 같은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B2C), 정부의 조달사업과 같은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B2A), 정부와 개인간의 거래(A2C)의 4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이밖에 경매와 같은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거래(C2C) 및 역경매와 같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B2C)의 형태도 있을 수 있음.

1) 이 자료는 지식정보센터 이동필(ldphil@krei.re.kr) 연구위원과 한근수(rainmker@krei.re.kr)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

전자상거래의 여러 가지 형태



자료: ESPRIT, 1996 Electronic Commerce, <http://www.cordislu/esprit>

3.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와 전망

-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0년 6천5백7십억 달러에서 2001년에 1조2천3백3십억 달러로, 2004년에는 약 6조8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경우 2000년 4천8백8십억 달러, 2001년에 8천6백4십억 달러, 2004년에 3조1천8백9십억 달러로 2004년에는 전체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2000년 3백19억 달러에서 2001년에 6백4십억 달러, 2004년에는 8천8백억 달러로 2004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 2000년 56억 달러, 2001년에 1백4십억 달러로 2.5배로 증가하고, 2004년 2천5십억 달러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서유럽은 2000년 8백7십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1천9백4십억 달러, 2004년에는 1조5천3백3십억 달러로 이를 것으로 전망. 이것은 2004년 전체 전자상거래시장의 23%에 이룸.

세계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와 전망

단위 : 10억 US\$

	2000	2001	2002	2003	2004
북미	509.3	908.6	1,495.2	2,339.0	3,456.4
· 미국	488.7	864.1	1,411.3	2,817.2	3,189.0
· 캐나다	517.4	38.0	68.0	109.6	160.3
· 멕시코	3.2	6.6	15.9	42.3	107.0
아시아·태평양	53.7	117.2	286.6	724.2	1,649.8
· 일본	31.9	64.4	146.8	363.6	880.3
· 호주	5.6	14.0	36.9	96.7	207.6
· 한국	5.6	14.1	39.3	100.5	205.7
· 대만	4.1	10.7	30.0	80.6	175.8
· 기타	6.5	14.0	60.6	130.5	197.1
서유럽	87.4	194.8	422.1	853.3	1,533.2
· 독일	20.6	46.4	102.0	211.1	386.5
· 영국	17.2	38.5	83.2	165.6	288.8
· 프랑스	9.9	22.1	49.1	104.8	206.4
· 이탈리아	7.2	15.6	33.8	71.4	142.4
· 네덜란드	6.5	14.4	30.7	59.5	98.3
· 기타	25.9	57.7	123.4	240.8	410.8
라틴아메리카	3.6	6.8	13.7	31.8	81.
기 타	3.2	6.2	13.5	31.5	68.6
합 계	657.0	1,233.6	2,231.2	3,979.7	6,789.8

자료 : 포레스터 리서치, 2000

4.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와 전망

- 우리 나라의 인터넷이용자수는 2000년의 5백만 명에서 2001년에는 7백만 명, 그리고 2003년에는 9백2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는 139만 명에서 236만 명 및 39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ETRI주간기술동향 933호, 2000).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0년에 9억 1천 330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24억9천5백만 달러, 그리고 2003년에는 102억 9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미국의 가트너그룹 및 앤더슨컨설팅은 2000년의 2천7백 억원, 2001년에는 6천5백 억원, 그리고 2002년에는 4조9천5백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물론 조사기관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2000년에는 3~5천억 원, 2003년에는 5~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전자상거래의 유형별로는 2000년의 경우 B2B형과 B2C형이 비슷하지만 2003년에는 B2B형이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 Anderson Consulting이 예측한 상거래 형태별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에서도 알 수 있는데 B2B는 2005년까지 매년 110%, B2C는 6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 인터넷이용자수와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와 전망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인터넷 이용자수(백만명)		5.03	7.02	8.15	9.23
전자상거래이용자수(백만명)		1.39	2.36	3.16	3.97
전 자 상 거 래 시 장 규 모	ETRI(백만달러)	913.3	2,495	5,184.7	10,290
	가트너그룹 및 앤더슨컨설팅(억원)	2,700	6,500	49,500	

5.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정 및 이슈

- 2000년 10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전자상거래매출액을 품목류별로 밝힘.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에서 농산물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사이버쇼핑몰 거래상품의 매출액 구성비 표에 의하면 광의의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해당하는 농수산물과 식음료 및 건강식품, 그리고 꽃의 7월과 8월의 매출액을 발표. 이를 평균하면 농수산물은 1,546.5백만 원, 식음료 및 건강식품은 3,953백만 원, 그리고 꽃은 1,238백만 원이 되며 이들을 모두 합하면 6,737.5백만 원에 이름. 이를 우리 나라의 월 평균 농산물전자상매출액 추정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 중에서 농산물전자상거래액 추정치의 비중을 보면 대략 5.1% 수준임.

사이버쇼핑몰 거래상품의 매출액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6월 구성비	7월		8월		증 감	%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계	100.0	129,070	100.0	135,347	100.0	6,277	4.9
1. 컴퓨터및주변기기	46.0	52,258	40.5	60,670	44.8	8,412	16.1
2. S/W(게임 S/W)		5,140	4.0	3,199	2.4	△1,941	△37.8
3. 가전/전자/통신기기	24.2	21,847	16.9	14,761	10.9	△7,086	△32.4
4. 서 적	8.2	5,740	4.4	6,837	5.0	1,097	19.1
5. 음반/비디오/악기		2,197	1.7	5,820	4.3	3,623	164.9
6. 여행 및 예약서비스	2.5	4,275	3.3	9,922	7.3	5,647	132.1
7. 아동/유아/완구	1.4	1,791	1.4	2,379	1.8	588	32.8
8. 식음료 및 건강식품	4.3	3,709	2.9	4,197	3.1	488	13.2
9. 꽃	0.8	1,554	1.2	922	0.7	△632	△40.7
10. 스포츠/레저용품	4.2	1,692	1.3	2,214	1.6	522	30.9
11. 생활용품/자동차용품		7,967	6.2	6,256	4.6	△1,711	△21.5
12. 의류/패션/잡화	3.9	4,169	3.2	2,829	2.1	△1,340	△32.1
13. 화장품/향수		3,708	2.9	1,462	1.1	△2,246	△60.6
14. 사무/문구		2,779	2.2	2,883	2.1	104	3.7
15. 농수산물		678	0.5	2,415	1.8	1,737	256.2
16. 성인용품		259	0.2	1,174	0.9	915	353.3
17. 각종서비스	0.2	2,126	1.6	279	0.2	△1,847	△86.9
18. 기 타		7,183	5.6	7,129	5.3	△54	△0.8

자료: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 2000. 8

- 농산물은 대개 10~11월중에 수확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7~8월의 매출액은 연평균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추정된 농산물전자상거래매출액 비중 역시 낮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7~8월 기간 중 전체 전자상거래의 매출액이 4.9% 증가한데 꽃은 40.7%가 감소하지만 식음료 및 건강식품은 13.2%, 농수산물은 256.2% 증가하여 농수산물전자상거래 매출액은 6,139백만 원에서 7,534백만 원으로 22.7%나 늘어남.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5.5%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수치는 이제까지 농림부가 농산물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를 대략 전체 전자상거래시장의 6% 수준으로 파악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무리한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됨.

국내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정

자 료 원	2000년		2003년	
	전체 상거래	농산물 전자상거래	전체상거래	농산물 전자상거래
한국전산원(억원)	4,154	228.5	37,800 ³	2,079
본 연구추정(MIN:억원)	3,000	165.0	50,000	2,750
본 연구추정(MAX:억원)	5,000	275.0	100,000	5,500
ETRI(백만US\$)	913	50.2	10,290	566
와튼경제연구소(백만US\$)	2,168 ²	119.3	9,613	529

주: 1) 농산물전자상거래 규모는 전체 전자상거래의 5.5%로 추정

2) 1999년 매출액 자료임

3) 2002년 매출액 추정치 자료임.

- 발표기관별로 전자상거래 규모에 대한 전망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국내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즉, 2000년도 B2C 형태의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기관별로 165~

275억원, 그리고 2003년의 경우 2,079~5,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ETRI 및 와튼계량경제연구소는 이 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50.2~119.3백만 달러, 2003년에는 529~566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각기 추정하고 있음.

- 무선인터넷 비즈니스(m-Commerce)는 전자상거래의 또 다른 기회라고 할 수 있음. 원활한 무선인터넷 비즈니스(m-Commerce)를 위해서는 광대역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야 함. IMT2000사업자 선정으로 무선인터넷 비즈니스의 기반이 이루어짐. IMT2000은 2001년부터 각종 응용 서비스와 솔루션이 시장잠재력을 타진할 것으로 보임. 다양한 무선단말기와 콘텐츠 개발은 물론 블루투스·모바일시스템통합 등의 실험이 전개될 전망이다. 무선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농산물도 이에 맞는 콘텐츠와 기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할 대사급 회의를 소집하고 실무 수준의 회의기구 설립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이로써 WTO는 앞으로 인터넷 거래에 대한 무관세정책의 지속 여부와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임. 또 새롭게 부상하는 뉴라운드협상 의제에 전자상거래 문제를 포함할 것 인지의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은 WTO 대사급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적 토의를 벌이는 한편, 실제작업을 위해 실무급 회의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나 개도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대비해야 함.

부 록

- 2000년 4/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2000년 4/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¹⁾

1. 개 황

- 11월21일과 12월7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농촌회생촉구를 위한 농민 총궐기 대회’와 관련, 매일신문과 부산일보 등 영남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 지역 주요신문이 농가부채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다루는 등 큰 관심 표명. 또 사설을 통해서도 농가부채 누적은 농정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농업인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
- 각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농가부채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따져묻는 등 농촌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농민들은 정부가 15조5천5백억원의 농어가부채에 대해 장기분할 상환이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부채경감특별대책을 발표하자 지금까지 단순한 상환연기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일부 기대감 표시. 하지만 상당수 농업인들은 연대보증과 연체자 대책이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요구.
- 농민시위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호의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언론들이 12월 중순까지도 부채경감특별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농기계 반납, 쌀 등 현물 상환 투쟁으로 시위가 계속되자 국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회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나 국회도 원칙과 형평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한편 각 지역 농협은 정부가 부채대책 마련에 들어간 11월 중순 이후 대출금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신용 불량자 낙인 등을 우려.

1) 이 자료는 농정분석실 김동원 책임연구원이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선정, 요점을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이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dongweon@krei.re.kr로 연락바람.

- 농업인들은 내년에 시범도입하게 될 쌀농가 직접지불제가 ha당 20만원~25만원의 제한된 지원폭으로는 환경농업 유지 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원폭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시간 등이 촉박한데다 신청자격 열람기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사과와 배에 시범 도입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도 자연재해에 민감하고 다수의 농가가 재배하는 고추와 복숭아, 수박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산물벼 수매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 예년보다 1등급 비율이 낮게 나오자 농업인들이 수매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곳곳에서 마찰. 또 농업인들은 건조비용과 인력부족 등으로 산물벼 수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추곡수매 물량중 50% 정도 수매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량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RPC 증설 필요성도 곳곳에서 제기. 이와함께 현행 3단계의 수매등급 구분도 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
- 11월들어 과일 등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채소류 가격도 폭락장세가 지속되자 유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경영비가 증가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줄줄이 도산. 또 명맥을 유지한 농가도 엽채류와 딸기 등 저온성작물로 재배작목을 전환하거나 휴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저온성 작물의 출하시기인 내년 5~6월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 전망.
- 축산분야는, 산지 돼지값이 최근 3~4개월새 40%까지 떨어지면서 1백kg기준 성돈 1마리에 10만원대까지 폭락했으나, 소비축진운동과 모돈감축운동 등의 효과로 11월 중순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11월 말경에는 일부지역에서 16만원대까지 회복해 양돈 농가들 안도의 한숨. 한편 쇠고기 시장 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암소와 송아지 값이 10월하순 작년 같은기간보다 30만원이상 오른값에 거래되면서 매매가 활발했으나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는 계속 증가.

2. 지역별 농업 관련 보도 내용

2.1. 경기도

- 경기도가 81년부터 1만2천5백여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해 육성했으나 농업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직종전환과 이주, 무단이탈 등으로 후계농업인 전체의 18%인 2천2백20여명이 각종 융자금 회수와 함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강화 등 절실.
- 경기도는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오리쌀 등 환경친화인증 3개 품목과 화성 이화회배 등 지역명품인증 27개 품목에 대해 시장·군수의 추천을 거쳐 선정한 뒤, 고유 심벌과 마스코트를 부착해 11월부터 본격 출하. 또 우수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도가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사이버농장의 취급품목을 7백80개서 1천5백개로 늘리고 개인 홈페이지도 1백개서 1백50개로 늘리기로 하는 등 농산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
-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4개 기관간 소유권 다툼이 있었던 팔당 수변 농지에 대해 국회가 타용도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정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기로 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 논란 예상.
- 최근 농촌에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평택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는 태국과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근로자가 농촌에 대거 몰리고 있어 농가에서도 값싼 노임으로 수확기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호평해 이같은 현상이 늘어날 전망.
- 최근 농촌경기 침체로 농촌에서 도시 실직자를 흡수할 만한 여력이 없게 되자 귀농인도 급격히 줄어 영농창업자금 신청자가 98년 1백30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급감.

-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98년 이후 올 7월말까지 허가된 축사 30만6천평중 67%에 달하는 20만4천여평이 불법 용도변경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 적용 강화 필요.
- 경기지역 저수지와 담수호, 양수장 등 3천9백20개의 농업용 수리시설중 42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1.9%인 26곳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원으로 지적됐고, 용인지역에서는 축산분뇨가 하루 5백여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부족해 웅덩이 등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하수와 토양오염 위험수위.
- 경기지역에서는 모돈감축운동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 돼지사육두수가 계속 증가, 9월말 현재 2백2만5천여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상승하고 있는 돼지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축산농가 노심초사.
- 경기지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소와 돼지중 4천5백여 마리가 사산과 성장장애 등 부작용 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4백여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역별로는 용인에서 3천7백여마리가 부작용 증세를 보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

2.2. 강원도

-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도시실업률이 높아지자 한동안 뜸했던 귀농상담이 농업기술센터에만 하루 10여건씩 접수되는 등 귀농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담자들도 영농자금 마련과 재배작목 사전 선택 등 준비가 철저해 IMF 초기 귀농자들과는 다른 양상.
- 강원지역에서는 올해 두차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고온과 충분한 일조량으로 쌀 수확량이 1백54만7천석에 달해 지난해보다 10a당 3kg, 평년보다는 15kg이나 더 많이 수확한 것으로 집계.

- 양구지역 채소재배 농가들은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김장채소의 작황이 저조한 것은 물론 수분부족으로 상품성도 크게 떨어지고 수확량도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해 울상.
- 강원지역 과수농가들은 11월초 신고배 가격이 15kg 상자당 1만5천원까지 떨어져 작년 같은기간의 절반수준에 그쳤고, 후지사과도 1상자당 8천원 하락한 1만7천원선에 거래되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등 피해 속출..
-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돼지값이 수개월째 하락하자 정부가 식량 60만톤을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외국산 곡류를 수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대신 돼지를 정부에서 구매해 지원하면 북한식량난도 덜고 축산농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2.3. 충청북도

- 농업인들의 농가부채 탕감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11월중 회원조합 상호금융과 정책자금 대출금 회수율이 11%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0.2% 포인트 낮아졌고, 정부에서 대책마련에 들어간 11월말 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낙인 등 피해 우려.
- 올해도 쌀 농사가 예년수준의 풍작으로 발표된 가운데 충북지역은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5백77ha나 줄고 태풍 등 영향으로 작황까지 나빠 생산량이 작년보다 0.8%정도 줄어든 2백15만2천석으로 잠정 집계.
- 충북지역에 2백여개의 벤처기업이 있으나 이중 농업관련 기업은 고작 2곳 뿐이고 전국적으로도 농업관련 벤처기업이 7천6백여개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북은 벤처 농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관심을 촉구.

- 원예작물재배 등 11개 분야 농업자격증제도가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단계별 시험을 해마다 치르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자격증 취득에 따른 별다른 혜택도 없어 극소수의 농업인만 응시, 농업정착자금 우선지원 등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농산물 공동계산제가 작목반과 농가의 신뢰구축 등 여건 미비로 수송위탁을 비롯한 판매대행 수준에 그치면서 충북지역 전체 작목반 1천4백18곳중 공동계산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10여곳에 불과.
- 보은지역에서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제도가 없어지면서 농기계 공유개념이 붕괴되고 구입형태가 개인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농기계 수명이 6년 연한의 콤팩인을 평균 4년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농기계 수명이 너무 짧아 융자금 상환도 끝나기 전에 고철화되고 있다고 지적.
- 가톨릭 농민회 청주교구는 11월 중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10월 중순 열렸던 충북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방안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과 농민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충북과학대에 특화작목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
- 산물벼 수매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수매가가 산지쌀값 보다 높게 형성되자 RPC 수매에 대거 몰려 일부지역 RPC는 10월말 이미 계획량 수매를 완료했고, 보은지역에서는 비슷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RPC의 경우 1등급 비율 편차가 20%에 육박해 수매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 제기.
- 충북은 미국 LA에서 열린 수출상담회를 통해 생고추장과 사과주스 등 2백40만 달러어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부식품은 월마트서 거래를 제외와 대량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고, 단양마늘시험장, 옥천포도시험

장 등 영농지도기관은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생산지도 등의 성과가 턱없이 부족해 농가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제천시지역 약초재배 농가들은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약초시장을 중심으로한 매수마저 급격히 줄어 황기와 천궁 등 가격이 예년보다 20%이상 하락. 또 청주지역에서는 11월 초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상품기준 포기당 경락가가 4백원선에 그쳐 작년 같은기간의 65% 정도나 떨어졌고, 무도 상품기준 개당 4백원 선으로 31% 정도 하락하는 등 채소값 전반적으로 하락.
- 과일 출하기인 10월 중순 사과와 배 등 주요과일 가격이 작년 같은기간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후지사과 18kg 상자당 1만2천원선에 경락됐고, 신고배도 15kg 상자당 1만4천원선에 그쳐 생산비 조차 건지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보은지역에서는 올해 콩 수확량이 8~9월 일기불순으로 작황이 나빠져 예년보다 10~20%정도 줄것으로 전망.
- 충북도가 인터넷 활용 및 지역관광지와 연결된 농산물 쇼핑관광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고작 1천여만원 확보에 그쳐 사업추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충북의 농촌지역 실업고등학교가 교명 변경과 교과과정 개편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생 모집결과 미달된 곳이 지난해 보다 7곳 늘어난 15곳으로 나타나 활로 모색이 시급.
- 충북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 창업공장 2천2백47개중 84.7%가 준농림지에 입주해 있고 이들중 상당수가 폐수배출 업체로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3백60여개 업체는 농지를 용도 변경해 공장을 설립, 농지잠식 문제도 제기.

2.4. 충청남도

- 정부와 자치단체가 천안에 공동으로 설립한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가 설립 1년만에 전문성 부족 등으로 60억원의 적자를 내고 민간에 이양키로 함으로써 공익성 추구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농업분야에도 인터넷을 통한 유통망 구축과 환경친화적 농법 등 다양한 벤처농업 분야가 있으나 정부의 의지와 관심 부족으로 청양지역에서는 백진달래 대량생산기술이 사장될 위기.
- 태안지역에서는 농지전용 형태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전용은 감소한 반면, 주거용은 증가해 올 상반기 농지전용 1백20여건중 주택용지가 91건을 차지.
- 천안지역 시설원에 농가들은 정부의 유류대 저리용자 지원에 대해, 고효율 저비용 에너지기기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와관련해 시설원예농가의 경작포기는 계속 증가.
- 천안지역에서는 12월초 산지돼지값이 1백kg 기준 15만4천원까지 회복됐으나 초중고등학교의 방학으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고, 양돈농가도 현재의 사육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가격상승요인 부재에 따른 돼지값 재 하락 우려로 농가 불안심리 여전.
- 구제역 파동을 겪었던 홍성지역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 끝에 11월말 6개 농가가 다시 시범사육을 실시, 임상증상 등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60일 동안 이상없으면 전체농가가 본격 사육에 돌입키로.
- 충남도는 농촌지역 환경개선 일환으로 내년에 4백30억원을 투입해 농어촌도로 66개 노선 53.9km를 신설하고 포장률도 34%로 높이겠다고 발표.

2.5. 전라북도

- 올해 전북지역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만금사업의 내년 예산확보도 환경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12월15일 군산에서 전북도와 도의회, 애향운동본부 관계자 등 3천여명이 대책사업에서 지역차별 말라며 쟁기대회를 갖는 등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 지속.
- 전북지역 농가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2천57만8천원으로 97년 비해 67만6천원이나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1천4백61만원으로 98년보다 1백2만원이나 늘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미곡중심 농업소득구조를 개선해 농외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 확산. 이와 관련, 전농 전북도연맹은 1백61개 농가의 소득과 부채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 소득은 3천2백85만원인 반면 부채는 4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발표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92개 품목 2천4백75점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0.7% 수준에 불과해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보도.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올 7월말 현재 6백52농가가 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환경농업 실천 면적도 5백9ha에 그쳐 경기도의 24% 수준.
- 시설비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전북지역 농협소유 29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책임의식 부재와 전문성 결여로 작년 한 해 7천9백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민간 RPC는 15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대조. 한편, 완주지역 농업회사법인들이 융자금 상환시기 도래와 농기계가 낡아 위탁면적 수용 능력이 줄면서 경영부실에 빠져 채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전북도가 최근 3년간 농림어업분야에 투자한 자체 예산이 1백85억원에 불

과해 가장 많이 투자한 경기도의 12%수준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군산지역에서는 회원농협이 노조설립 등으로 노사 갈등 심화와 검찰의 내부비리 수사로 어수선한 가운데 축협도 고액 부당대출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농·축협이 내우외환.

- 전북지역의 조수보호구역 주변 농가들은 조수로 인해 보리 등 매년 수백 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상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이 이를 거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전북지역 평야부 논값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부족해 한필지당 평균 3천7백60만원에 거래되면서 3년전에 비해 25.7%나 올랐고, 일부지역선 최고 70%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보도. 또 감사원 감사결과 이지역 임도가 산주들의 사업비 부담 기피로 75개 노선중 35%인 26개 임도 81곳에서 노반 침하나 유실 등 부실 투성인 것으로 나타나.
- 전북지역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들은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설설치에 미온적이어서 4개 대상 농산물 거래법인 중 계약을 체결한 곳은 1곳에 불과. 또 전북지역 농촌특산단지가 홍보와 판매전략 부재로 지난해 28곳이 사업 취소된데 이어 올해도 7곳이 취소돼 활성화 대책 시급.
- 완주지역에서는 무와 배추 재배 농업인들이 정부가 올해 책정한 채소류 품목별 최저보장 가격 인상률이 평균 7.8%선에 그쳐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에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하며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가 생색내기용 이라고 비난.
- 장수군은 이지역을 전국 최고 사과명산지로 조성할 계획아래 현재 4백ha에 불과한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천ha로, 2010년까지는 2천ha까지 확대

하기로 하고 사과 식재를 위한 기반정비 사업과 개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

- 전북지역 농가가 일본으로 수출한 방울토마토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돼 일본당국에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등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가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고, 완주지역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들이 유가 폭등과 과채류가격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줄줄이 도산.
- 전북지역의 산지 소값이 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해 10월 하순 암소 5백kg기준으로 작년 같은기간 보다 30만원 이상 오른 3백만3천원선에 거래됐고, 송아지값도 작년 같은기간 89만원선에 비해 크게 오른 1백23만8천원에 거래. 또 돼지값은 10월 중순까지 10만원선에 거래됐으나 11월 하순에 정읍 지역에서 16만7천원까지 거래되는 등 빠르게 회복.
- 순창지역 대형축사 41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안전 점검결과 농업용 창고나 시설하우스 등을 개조해 사용, 방제시설이 허술한 축사가 절반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에 무방비.
-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농촌지역 유치원생들이 자신있는 의사전달과 어휘력이 도시아이들에 비해 부족하고 학부모들도 언어발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절실.

2.6. 전라남도

- 전남도는 담양 등지에 30만평 규모로 첨단 연구시설과 교육, 생산, 유통시설을 패키지화하는 첨단농업기술센터를 조성해 일본시장을 겨냥한 신선채소, 화훼 등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과 전자경매장 등 유통시설을 집중 배치,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키로 했다고 발표.

- 전남도내에서 올 6월까지 수출한 농산물의 91%가 일본에 편중, 현지 작황과 가격변동에 따라 물량이 크게 좌우되는 등 폐단이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강진군은 ‘청자골 강진’ 공동브랜드를 개발, 농특산물 15개 품목 42종을 선정해 포장재 제작시 활용토록 하는 등 브랜드화 지원 강화.
- 전남도는 일반벼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발벼 생산량이 31만9천여석으로 증가하자 수매 과정에서 일반벼와 섞일 경우 전남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유통 차단에 나서는 등 전남쌀 이미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보도했고, 또 전남대 연구팀은 일반벼에 비해 가지와 이삭수가 30%가량 많아 쌀 수확량을 최고 26%는 더 늘릴 수 있는 ‘수퍼 벼’를 개발, 국제특허 출원했다고 발표.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24만 농가 가운데 1천2백94가구가 부채를 갚지못해 자산이 경매처분 당하면서 경매금액만 4백억원이 넘었고, 농협대출금 장기연체도 1만2천86개 계좌로 전국 최다를 기록해 부채문제가 심각.
-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12월 초순 사과에서 ‘헵타클로르’라는 환경호르몬을 검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대구와 경북지역 사과 농업인들의 항의를 받고 “실험오류였다”고 조사결과를 번복해 공신력에 큰 오점 남겨.
- 광주지역 농가의 컴퓨터 보급률이 1만1천호중 6.6%에 불과한 7백34농가에 그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산직원이 한명도 없어 홈페이지도 개설하지 못하는 등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미흡.
- 전남도가 주요청과물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 농가 대부분 포전거래로 사과 37.5%, 배 37.1%, 김장배추 89% 등 30% 이상의 높은 유통마진을 지불하고 있어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생산자조직의 공동

출하 강화 등 필요.

- 전남지역의 내년 과채류 재배 의향면적 조사결과, 올보다 양과는 15% 증가하고 마늘은 1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배는 2백ha나 증가하는 반면, 방울토마토는 4배87ha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채류의 재배면적 변동폭이 커 매년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 전남도가 93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추 등 채소류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해동안 같은 품목에서 최대 5배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나 과중면적 조절 및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키로 하는 등 가격안정 유도에 나섰다고 보도.
- 전남도는 경지면적 41만6천여ha중 원예특작이 12만5천여ha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02년까지 무안지역에 첨단원예농업 거점단지를 건설하고, 광양항 주변에 종합물류센터도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 전남도내 관광농원 88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고객 유치에 실패하면서 11곳은 이미 사업을 포기했고, 6곳은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에따라 사업아이템 개발과 인터넷을 통한 고객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
- 한국통신 전남본부는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총 40억원을 투입, 장성 등 4곳에 ADSL500 회선을 제공하고 시범마을의 홈페이지도 구축키로 했다고 발표.
- 전남도는 이농 등으로 폐가가 늘어나 흉물로 방치되면서 농촌 환경을 크게 해친다고 보고 1천5백51채를 철거, 일부는 주말주택 알선 등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도시민을 유인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전남지역 1백26개 농촌지역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4.3%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나 진취성, 학교시설의 현대화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2.7. 경상북도

- 경북지역 37개 RPC에서 올 추곡 82만7천석을 수매하려 했으나 저장 능력은 61만1천8백여석에 불과해 나머지는 야적이 불가피, 미질과 도정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고, 울진지역에서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1농가 조합원 2명가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일부 읍·면단위 농협에서 통폐합을 피하거나 조합장 선거때 지지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
- 경북지역 영농법인 9백98곳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실법인이 2백71곳에 달하고 이중 2백17곳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 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농법인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가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
- 울진지역의 ‘한농복구회’ 회원 70여명이 연해주 땅 1백50만평의 황무지를 무료로 임대받아 올 2월 첫 개간을 실시해 채소류 등을 심어 풍작을 거둬으로써 연해주 고위 관료가 한국인 누구에게나 토지를 무제한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
- 7월 하순 중도매인들이 무와 배추 등 12개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를 요구하며 경매참여를 거부해 파행을 겪었던 대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 대표와 경매사, 중도매인, 관련공무원 등 1백20여명이 수백억원대 농산물을 위장경매한 혐의로 적발되면서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

- 경북지역 농업인들도 농가부채해결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영농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미루고 관망하고 있어 영농자금 대출금 회수가 저조.
- 경북지역 채소류 재배 농업인들이 최근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 저온성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모종 품귀현상까지 보여 내년 봄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파동 우려.
- 청도지역 사과 농가들은 수확기 일손부족과 이에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량의 60% 가량을 헐값에 받떼기로 거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 또 이지역에서는 올봄 양과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0% 증가했고, 중국산 수입마늘 여파로 양파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까지 늘어 과잉생산 전망.
- 경주지역 과일재배 농가들은 과일가격의 전반적인 폭락세 속에서도 단감이 동남아로 수출된 것을 비롯해 배도 올해 안으로 7백여톤, 딸기와 토마토는 내년 3월까지 6백여톤 수출 예정으로 있는 등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일 수출이 활기.
- 안동지역에서는 11월 하순 산지 김장 무와 배추값이 예년보다 70%까지 하락했고, 마늘과 사과, 배 가격도 바닥세에 중간상인들 마져 끊겨 일부 농업인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가 속출.
- 경북도와 농림부의 가축통계가 제각각 달라 돼는지 7만4천여두, 닭 1천4백 87만여수 등이 차이나는 등 통계 수치의 편차 커 수급조절 등 축산정책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
- 구미지역에서는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암소까지 비육시켜 출하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도 급감하면서 한우사육기반 붕괴 우려.

2.8. 경상남도

- 경남도는 내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매년 50억원씩 조성해 농산물의 정확한 통계 확보를 통한 수급조절 등 종합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각계 전문가로 ‘농업특별대책팀’을 구성.
-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농지 전용을 신청한 건수는 1만1천5백여건에 달하고 면적은 7백30여만평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별로는 김해가 1천8백여건으로 최다 기록.
- 산물벼 수매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RPC는 30곳에 불과하고 처리용량도 작아 일부 처리장에서는 물량의 20~30% 정도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미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RPC 확충을 요구.
- 부산지역에서 찰쌀보리 농가는 제빵회사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는 일본 바이어와, 오리농법쌀은 RPC와 사전 생산계약을 통해 재배함으로써 가격 등락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맞춤농사’가 활기를 띠면서 재배면적도 계속 증가. 또 11월 하순 부산세관은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고춧가루와 참깨 등 중국산 양념채소류의 밀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두 달간 17건에 18억여원어치가 적발됐다고 발표.
- 경남지역의 농산물 수출액이 올들어 9월말 현재 2천2백56만 달러어치로 작년동기대비 40.8%나 신장했으나 이중 98%가 일본시장에 의존하면서 현지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출물량도 크게 좌우돼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다변화 절실.
- 경남지역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6곳중 3곳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곳은 부도처리 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한편, 4곳은 규격출

하율이 50% 이하로 밀돌고 선별기와 저온저장고 등 기존시설의 활용률이 50% 미만인 곳도 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

- 경남도가 51개 농산물에 대한 경영비와 소득을 조사한 결과, 장미가 3백평당 1천3백36만원의 소득을 올려 1위를 기록했고, 느타리버섯과 들깨잎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나 쌀과 보리 등 식량작물은 하위권을 기록해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득화 방안 마련이 필요.
- 함안지역에서는 최근 4~5년새 배 재배면적이 두배 가까이 늘어 과잉생산 되면서 10월말 기준으로 신고배 경락가가 15kg들이 한상자에 2만5천원선으로 한달새 16.6%나 하락.
- 의령지역의 농촌 간이급수시설 3백2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가 넘는 40여곳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이 발견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관련 검사의 규정 강화 필요.

2.9. 제주도

- 제주 농업인들의 가구당 부채액이 2천5백71만7천원으로 총 부채규모가 1조5천5백억원에 달해 98년보다 3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나서 도의 일반회계예산의 1%씩을 조성토록 하는 등 2010년까지 5백억원을 조성해 농업인 기술개발과 구조개선,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 제주도는 또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감귤원 3천9백ha 폐원 등 7개분야 32개 사업을 추진, 적정 생산량인 55만톤을 유지해 농가 총 수입을 6천억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감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제주감귤이 제주산보다 출하시기가 빠르고 당도도 높으며 가격도 낮은 중국산 감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로 올해 제주산 감귤이 캐나다에 3천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산이 8백여톤 잠식해 2천2백여톤으로 줄어드는 등 우려 현실화.
- 제주도가 2005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정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산물 평가기준은 크기와 외형, 색깔 등을 중시하는 품조가 여전히 친환경농업생산에 역행.
- 제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디지털시대에 맞춘다는 원칙아래 포도와 감귤 등 9개 농산물에 대한 표준규격을 새로 정하는 한편, 1백2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소포장화도 추진하는 등 규격 정비에 착수.
- 감귤휴식년제에 참여한 농가 66곳을 대상으로 농가소득을 조사한 결과 평균 예상소득이 3백평당 5백93만원으로 일반농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휴식년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 남제주는 ‘청정축산물 안전생산관리 품질보증제’를 실시, 신례한우단지 등 4곳을 지정해 축산분뇨 적정처리, 한우거세 및 고급육 생산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

농업·농촌경제동향 2000 겨울

찍은날 2000. 12. 30 펴낸날 2000. 12. 30

발행인 강 정 일

펴낸곳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